

주일학교 7학년 1과

성경 - 성경의 유일함

이름 _____

성경은 책 중의 책입니다. 성경은 유일합니다. 온 세상을 통틀어서 이와 같은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유일한 책입니다. 사람이 쓴 책들은 오직 하나님의 무오한 책인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반영할 때에 비로소 진리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 성경책에서 발견된 진리들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무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 가장 유명한 영문학 교수 중 한 명인 펠프스(William Lyon Phelps)는 40년 동안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습니다. 그는 20세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영문학의 훌륭한 주제들에 관해서 교실 밖에서 더 많은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가 57세에 출간한 <성경 속 인간의 본성>이란 책의 서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의 필요성에 관한 매우 눈에 띄만한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30년 동안 명문 대학에서 교수직을 수행한 분이 쓴 것입니다. 사실 그는 거의 매일 깨어 있는 시간에 이 세상의 위대한 책들을 읽으며 살았습니다. 다음은 펠프스 교수의 성경에 대한 헌사입니다. 여기서 그는 성경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관해 통달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누구나 다 교양인으로 불릴 것입니다. 다른 책과 문화를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또 그런 것들이 아무리 고상하다 해도 그런 지식이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아는 지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서양 문명은 성경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생각, 지혜, 철학, 문학, 예술, 이상 등은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책을 합친 것보다 성경 그 자체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성경은 신성과 인간성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성경은 세상적이고 쾌락적이며 마귀적인 모든 것을 솔직히 표현하면서도 가장 고귀한 종교적 열망을 포함합니다. 나는 남녀를 위한 대학 교육이 중요하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은 알지 못한 채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안다면 당신은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_____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_____를 알리니 _____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요8:31-32)

성경이 없으면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_____은 _____.”(요17:17)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성경책 겉표지와 제목 페이지일 뿐 성경 안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¹⁾

다음의 표는 성경 안에 ‘성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과 관련된 사실이 있음을 잘 보여 줍니다.

- 성경 어디에도 “성경을 읽으라.”는 말은 없지만, 요5:39을 보기 바랍니다.
- 성경 어디에도 “성경을 연구하라.”는 말은 없지만, 딤후2:15를 보기 바랍니다.
- 성경 어디에도 “성경은 완전한 진리입니다.”라는 말은 없지만, 요17:17을 보기 바랍니다.

1) 주의: ‘단어 색인’(Concordance)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알파벳순서로 목록화한 매우 유용한 책입니다. 스트롱이 지은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를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스테디 바이블도 뒤쪽에 간단히 단어 색인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색인도 유용하긴 하지만 그런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중 일부만 들어 있을 뿐입니다.

- 성경 어디에도 “성경은 살아 있고 강력합니다.”라는 말은 없지만, 히4:12를 보기 바랍니다.

- 성경 어디에도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 받았다.”라는 말은 없지만, 딤후3:16을 보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르는가?

‘성경’이란 단어는 ‘책들’을 의미하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비롯했고, 그것은 정확하게 성경의 문자적 의미 즉 ‘신성한 책들을 모은 책’을 말합니다.²⁾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중하고 가치 있는 도서관을 주셨는데 그 도서관은 66권의 책들이 한 권으로 묶인 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경의 책들은 어떤 점에서 특별할까요?

성경은 답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답을 알아야만 하는 궁극적인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오직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질문들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도 성경을 참조하지 않는 한, 당신이 이런 질문에 답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이 질문들에 대해 명료한 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사고와 논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기에는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도 또한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세상이 시작될 때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또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될 때 그 자리에 계셨고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욥38:4)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아는 게 없습니다. 저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분의 말씀 그대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부터 내가 500만년 이후에 어디에 있을지도 모두 아십니다. 만약 우리의 운명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 대답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관해 무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주는 유일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2) 영어 단어 ‘참고문헌’(Bibliography) - 저자가 언급한 책들의 목록 - 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 단어인 ‘비블리온’(Biblion)(요20:30; 21:25, 딤후4:13, 계20:12)과 ‘비블로스’(Biblos)(마1:1; 행19:19; 빌4:3)는 다 ‘책’ 혹은 ‘책들’로 번역되었습니다.

위조 성경들

진짜 백 달러 지폐가 있고 가짜 백 달러 지폐가 있습니다. 가짜 지폐는 사람들이 가짜 지폐를 진짜 지폐라고 생각하도록 속이기를 원하는 부정직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지폐가 진짜이고 가치가 있다고 당신이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위조지폐일 뿐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가짜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 역시 안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가짜 책을 쓰는 작가들은 자기들이 쓴 책이 진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속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이런 가짜들이 참으로 진짜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가짜 성경 중에 하나가 몰몬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몰몬경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진리>(한국에서는 파수대로 잘 알려진 책)라고 이름 붙인 수백만 개의 소책자를 배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책이 가르치는 방법은 성경이 가르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과는 모순이 됩니다. 두 책 모두가 진실을 말할 리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가짜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약 하나가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를 말한다면,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는 오류를 말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요6:47)

무슬림(이슬람교) 혹은 무하메단(모하메드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짜 성경은 코란이라고 불립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설립한 에디(Mary Baker Eddy)는 <성경의 열쇠로 푸는 과학과 건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열쇠는 무언가를 열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잠그기도 하는데 슬프게도 에디의 책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진리를 잠그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성스러운 책이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가짜를 주의하십시오. 성경과 이런 종교적인 책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과연 성경은 이런 범주의 책들 가운데서 정말로 유일하고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책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리켜 - 이 경우는 구약성경을 말함 - _____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영어 성경 겉표지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전서 - The HOLY BIBLE.

여기서 '거룩한'(Holy)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따로 떼어 놓다'입니다.

당신이 들판이나 연못가에서 발견한, 작고 보통 크기의 지저분한 100개의 돌을 가득 채운 가방을 메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 돌들 중에 하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가방에서 어떤 돌 하나를 꺼내 깨끗이 씻고 광택을 낸 뒤 아름다운 금반지 위에 세팅해서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 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 돌은 이제 가방 속에 있는 다른 돌들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를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시고(우리를 구별되게 하심/ 고전1:2; 6:11)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거룩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롬1:7; 빌1:7; 골3:12)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원을 통해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과거나 현재나 항상 거룩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르며 특별함을 보여 주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성경은 그 저자가 하나님이신 유일한 책이다.

성경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책들이 있다고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신성하게 영감 받은 유일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_____ 하나님의 _____ 으로 주신 것으로..." 문자적으로 이것은 '모든 성경기록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신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경 기록의 모든 단어들을 숨을 불어내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할 때에는 우리는 숨을 내쉬며 단어들을 내놓습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뭔가를 말할 때 숨을 멈추고 말해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모든 성경기록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신 것이라는

말은 곧 모든 성경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참고로 시33:6에서 '주의 말씀들'은 곧 '그분의 입의 호흡'과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기록들을 내뱉으셨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읽든지 당신은 “주의 _____ 이 그것을 _____.”(사40:5)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어떤 책도 성경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성경을 쓴 것을 알잖아. 예를 들면 모세, 다윗, 이사야, 마태, 누가,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들 말이야. 사람들이 그것을 썼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 예를 들면, 모세, 다윗, 이사야, 바울 등 - 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 성령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대로 - 말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안내하셔서 그들이 기록한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쓰게 하신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기자 혹은 서기(penman)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시고 바로 이 하나님은 이런 서기들을 사용하셔서 실제로 그 단어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가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이 언제 집에 돌아올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기 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는 7개의 각기 다른 펜 혹은 매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기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5시에 돌아올 것이다.”(I will be back at 5:00 o'clock). 비록 아버지가 다른 펜들과 필기도구들로 메시지를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I will be
back at
5:00 o'clock.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사람들을 서기 혹은 필기자로 삼으셨지만 이들이 쓴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쓰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위의 그림에 있듯이 예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펜으로 써서 남긴 메시지를 적기 위해 사용된 여러 필기도구처럼 필기자들의 스타일은 매우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은 종종 매우 짧은 문장을 사용했고 바울은 종종 긴 문장을 사용했지만, 요한의 짧은 문장이든 바울의 긴 문장이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 사용하신 사람 다윗을 하나의 예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자라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스런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깨달은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_____는 _____”(시23:1).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이 쓴 단어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쓰기를 원하셨던 그 단어들이었습니다. 사무엘기하 23장 2절에서 다윗이 자신이 생애 끝 무렵에 스스로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_____의 _____ 내 혀에 있었도다.” 이 구절에 따르면, 진짜로 말한 분은 누구인가요? 누구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었나요? _____

2. 성경은 완전한 진리인 유일한 책이다.

많은 책들은 진실 되고 유익한 진술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쓴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실한 것들을 말 할 뿐 아니라, 성경 자체가 진리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_____.”(요17:17) 그래서 성경

은 완전히 무오하고 절대적으로 완벽한 책입니다.

‘무오하다’(inerrant)는 말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잘못에서도 자유롭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어떤 잘못도, 실수도, 흠도, 모순도, 불일치도, 비일관성도, 불일치도, 불완전성도, 결점도, 속임도, 오해도, 계산 실수도, 허위 진술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시119:160)

‘절대적으로 완벽하다’(infallible)는 말은 성경이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음을 뜻합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이 말은 ‘무오하다’와 동의어입니다. 이 말은 잘못되거나 실수가 있거나 부정확하거나 사람을 잘못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신뢰할 만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가끔 사람에게 잘못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교회는 교황이 공식적인 발표를 할 때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교황도, 사제도, 목사도, 교수도 절대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완벽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절대적으로 완벽합니다(요10:35).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마22:29).

성경의 진실함(참됨)은 진리의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진리에 관한 한 하나님은 놀라운 명성을 지닌 분입니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에서 결코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_____.”(히6:18)

“그분은 _____.”(딤후1:2)

과거에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손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 전체를 말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 줍니다.

3. 성경은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책이다.

만약 성경이 진짜로 다른 책들과 다르고 독특하다면 그리고 성경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믿고 이 책의 명령대로 복종함에 따라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_____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quick’이란 단어는 ‘살아 있다’를 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_____.”(요6:63).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종종 혼란을 겪었던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았습니다. “주여, _____ 말씀들이 주께 있나이다.”(요6:68). 사실 성경은 심지어 ‘_____ 말씀’(빌2:16)이라고도 불립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성경이 진짜 다른 책들과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성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 자신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완전성에 대해서는 <성경, 얼마나 확고한 기초인가>라는 글을 보기 바랍니다.

〈성경, 얼마나 확고한 기초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담고 있다.

성경의 교리들은 기록하고 그 훈계들은 구속력이 있으며 그 역사들은 진실하고 그 결정 사항들은 바꿀 수 없다. 성경을 읽어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믿어 안전을 얻으며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여 기록한 자가 되라. 성경은 너를 인도할 빛과 너를 지탱할 음식과 너를 기쁘게 할 위로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항해사의 나침반이요, 군사의 칼이요, 그리스도인의 현장이다.

성경 안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하늘이 열리며 지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행복이 성경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 자주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이 네 기억 속에 박히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하며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라. 성경은 부의 보고요, 영광의 낙원이요, 기쁨의 강이다. 네가 살아 있을 때에 주께서 이 성경을 주셨으니 또한 심판 때에 이것을 펴시고 영원토록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요구하여 수고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상을 주되 그 안의 기록한 내용들을 무시하는 자는 다 지옥 불로 정죄할 것이다. - 작자 미상

주일학교 7학년 2과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름 _____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높은 수준의 수학책을 보여줬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것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대학의 화학이나 물리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히브리어 사전을 본적이 있습니까? 보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쉽게 이해할 책입니까? 경제학 책, 당신의 차를 수리할 정비사 매뉴얼, 항해 도표에 대한 책, 컴퓨터 프로그래밍 안내서, 의학도를 위한 고급 해부학 책, 작곡에 대한 교과서,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자하는 사람을 위한 정기간행물, 혹은 건물 청사진 모음 등은 어떨까요? 당신은 이런 책들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책들은 수년간의 특수 훈련과 연구 후에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에게 그런 책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읽느라고 시간 낭비할 이유가 있나? 이 책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전문가를 위한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느낍니다. 그들은 성경은 뭔가 신비스럽고 수수께끼 같은 책으로 일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공부한 ‘전문’ 신학자들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책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마도 교황이나 제사장, 혹은 교수 혹은 목사님은 성경기록을 이해할지 모르지만 난 분명히 할 수 없어.”

이것은 참으로 큰 거짓말입니다!

오직 선택받은 소수만이 성경을 이해할 만큼 교육을 받았거나 특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특히 ‘중세암흑시대’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둠과 타락과 영적 죽은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의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자주 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성경을 갖지도 못하였고 많은 경우에 성경은 일반 언어나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좋은 책은 그 책을 쓸 때 저자가 염두에 둔 모든 독자들에게 의해 이해되어야 합니다. 천문학 책은 천문학자들을 위해 마련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부학 책은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의사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 책은 변호사들이 이해하도록 씌어졌습니다. 만일 그 책이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 씌어졌습니까? 그것은 오직 교황들이나, 사제들, 교사들과 목사들만을 위해 씌어졌습니까? 성경은 죄인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구원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 죄인들을 위해 씌어졌습니다.

세상 인구 중 죄인들은 얼마나 됩니까(롬3:23)? _____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죄인들 중 몇 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까(딤후2:4, 4:10도 비교)? _____

그렇다면 성경은 당신을 위한 책입니까? _____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성경을 주셨다면 또한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_____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아름다운 농구장을 지어주고는 그에게 농구공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이 없어 농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한 책을 주셨다면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그 안의 내용을 뜻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2. 평범한 언어로 주어진 비범한 책

일부 기술적인 책들은 (특히 고등 과학이나 수학 책들) 너무 복잡해서 그것들을 읽는 것은 거의 외국어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미적분학 방정식 등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적 생각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어떤 기술적이거나 매우 어렵거나 신성한 언어로 그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성경은 원래 ‘코이네 그리스어’ 즉 평범한 그리스어로 씌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제국에서 일반 사람들이 쓰던 자연적이고도 평범한 언어였습니다.

성경이 전통적인 그리스어 (예를 들어 철학자 플라톤이나 역사가 투키디데스, 연설가/정치가인 데모스테네스 등이 사용한 그리스어)로 씌어졌다면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인텔리나 ‘전문가’들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_____ 사람과 _____ 사람들이’(행4:13)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시기 원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그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가 아닌 자기들의 언어로 갖게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통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이라는 공통의 필요를 알려주기 위해 평범한 언어로 전달된 ‘매우 비범한 책’입니다.

성경이 실제로 얼마나 참으로 단순한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길고 어려운 단어들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단순하고 평범한 단어들도 생각해 봅시다: 씨 뿌리는 자, 씨, 가시나무, 땅, 귀, 들, 새, 진주 등.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땅에 있는 평범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바울이 쓴 것들 가운데 몇 가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_____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_____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_____ 것이 더러 있으므로”(벧후3:15-16)

어떤 것들은 우리가 새롭게 크리스천이 되면서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 신자이든 성숙한 신자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원하십니다.

3. 꼭 알아야 하는 한 분

사도행전 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이해하기 원했던 사람 - 에티오피아 내시 - 이 나옵니다. 30절에서 빌립은 이 남자가 자기의 병거에 앉아서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그대가 읽는 것을 _____?” 혹은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사람이 성경기록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사람이 읽을 수 있었던 언어로 성경 복사본을 섭리에 따라 은혜롭게 준비하셨습니다 (28, 30-35절). 이 사람은 진리를 찾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혹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준비하셨습니다.

빌립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느라 매우 바빴습니다(5-6, 12, 25절 참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빌립을 보냈습니다(26, 30, 35절 참조). 주의 사항: 내시가

도움을 필요로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오늘날의 우리처럼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사람에게 충분한 이해력을 주셔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35,37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경기록을 이해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분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분께서는 당신을 가르치고 당신이 이해하는 것을 도와 줄 성도를 주셨습니까? 그 결과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4.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읽는 자는 _____.”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여기서는 다니엘서) 읽는 사람은 자기가 읽는 것을 이해할 것을 명령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지한 자들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1	___	사탄의 계략에 대해 모름	롬11:25
2	___	이스라엘이 현 시대 동안 부분적으로 눈멀게 되는 신비에 대해 모름	고전10:1-5
3	___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실패에 대해 모름	고전12:1
4	___	성도들의 휴거 (들려올라감)에 대해 모름	고후2:11
5	___	노아시대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에 대해 모름	살전4:13
6	___	영적 선물들에 대해 모름	벧후3:5-6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고전14:9, 19, 20).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_____ _____ _____ _____ 돌지니라.”(고전14:38)

실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른 답에 동그라미를 치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 성경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 단순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한다.

성경은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읽고 이 구절을 정확하게 완성하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너희가 _____ 하려 함이라.

1. 무지하게
2. 혼동하게
3. 사제나 다른 전문가에게 가서 그가 그것을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게
4. 알게((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알고 이해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힌트들

1. 먼저 당신은 확실히 구원받아야 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멀었습니다(고전2:14; 롬 3:11; 엡 4:18).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들의 눈을 여시고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행16:14와 비교).

2. 하나님만이 당신을 가르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당신이 성경기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해력(딤후 2:7)은 누가 주어야 합니까? (눅 24:45)_____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당신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읽을 때에 그 책의 저자가 당신과 함께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3.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확신해야 한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읽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면, 그는…알리라.” 만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말씀을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을 사람에게 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까? 만일 어떤 사람에게 5만원을 주면 곧 나가서 술 마시는 데 써버릴 것을 안다면 당신은 그에게 그 돈을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진리를 주시고 드러내시는 것에 아주 신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열 가지

1.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요3:3,7).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고전2:14)

2.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를 알기를 원해야 한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요8:31-32)

3.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요 7:16-17)

4. 성장하기를 원해야 한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벧전2:2)

5.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요13:17)

6.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한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1:22)

7. 그리스도의 명명들을 배울 뿐 아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마28:20)

8. 교리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네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네가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딤후4:16, 행20:28 참조)

9. 성경 공부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부지런히 가능한 모든 노력을 들여라).”(딤후2:15)

10. 깨닫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깨닫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영적으로 준비되며 그분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을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딤후2:7; 약1:21)

주일학교 7학년 3과

하나님의 말씀 읽기

이름 _____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는 복이 있나니...”(계1:3)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안들이 여기 있습니다.

1.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

신체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세끼 식사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까?(벧전2:2; 마4:4; 욥23:12) “오늘 너무 바빠서 점심과 저녁 먹을 시간이 없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매일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에게 성경 읽기에 대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만일 형제님이 마땅히 성경 읽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바빠서 매일 성경 읽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형제님을 바쁘게 만드는 몇 가지 일들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꼭 성경을 읽으세요.”

하루 중에 특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 성경 읽는데 할애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좋은 방법이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읽기에 아침시간이 가장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저녁시간이나 하루 중 조용한 시간에 읽습니다. 몇몇 어머니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 아이들을 학교 보낸 오전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기 위해 여러분에게 가장 최적의 시간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천천히 성경 읽기

성경을 진정으로 몇 장 읽었는지 세는 것의 의미는 “얼마나 많은 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훑어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쳤느냐”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3장을 읽고도 여러분이 읽은 장에서 어떠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보다 한 절을 읽더라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적은 양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많은 양을 서둘러서 읽는 것 보다 낫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9절에 따르면, 바울은 너무 서둘러서 대충 읽는 바람에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수천 개 단어를 읽는 것보다 우리가 이해하는 다섯 마디 말씀을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을 시계 위에 두면서 30분간 읽는 것 보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 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체계적으로 성경 읽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선물 뽑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제가 읽기를 원하는 페이지로 저를 인도하소서.” 그리고는 성경을 무작위로 펴고 펼쳐진 곳을 읽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선물 뽑기’ 방식으로 성경 읽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 주고자 하니 다음의 예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이처럼 선물 뽑기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했던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연히 펼친 성경이 첫째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는데 그 내용은 “유다가 밖으로 나가 목을 매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구절을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잘 몰라서 성경의 또 다른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는 몹시 화가 났고 어떻게 이 구절에 순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경을 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다시 성경을 아무 곳이나 펼쳤는데, 아...이게 웬일인가요?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두렵게도 그의 손가락은 요한복음 13장 27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믿거나 말거나 이후에 이 남자를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듯이, ‘선물 뽑기’ 방식의 성경 읽기는 사람을 성경 문맥 밖의 구절로 쉽게 끌고 갈수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첫 부분부터 읽기 시작하여 끝까지 쪽 읽습니다. 이것은 작가들이 글을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글을 읽는 가장 최적의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통 이와 같은 식으로 편지를 읽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소책자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최상의 방법은 첫 부분부터 읽기 시작하고 끝부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3장을 먼저 쓰고 나중에 8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1장부터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 2장, 3장, 4장...이런 식으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이 이런 식으로 신약의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다면,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각 성경의 첫 부분부터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1년 365일 동안 성경 읽는 것을 꿈 꿔 본적이 있나요?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돕기 위해, 성경 읽기표가 이미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30분씩 성경 읽기에 투자한다면 일 년 안에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표는 여러분이 매일 얼마만큼의 양을 읽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번과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성경 읽기 표를 참조해 보세요.

4. 주의 깊게 성경 읽기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단어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사소한 것이라고 간과하지 마세요. 마치 탐정이 사건 현장을 샅샅이 살펴보고는 범행에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올바른 것들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성경 읽을 때 생각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한 가지 해결책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내가 읽은 내용이 뭐지?” 이렇게 말이지요.)

5. 연구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누가 저자이고 화자인가?”, “기록된 페이지의 수신자가 누구이고 말하고 있는 화자는 누구인가?”, “주제는 무엇인가?”, “대명사(그, 그녀, 그것, 당신 등)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다음은 읽고 있는 성경 페이지의 의미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핵심 질문입니다.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믿어야 할 약속이 있는가?

따라야 할 좋은 예가 있는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하나님에 관해 내가 배우는가?

인간에 관해 내가 배우는가?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려야 할 점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성경 읽기가 실제로 삶에 적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티슨(J. G. Mathieson)은 매 주일 복음 설교에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어린 소년에 대해 말합니다. 어느 날 밤 예배에 참석 할 수 없었던 소년은 방에 들어가 성경을 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위층으로 올라오셨는데, 그때까지 그 소년이 뭘 하고 있었는지 어머니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애가 너무 조용한 걸 알아채고는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애야! 너 뭐하고 있니?”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걸 보고 있어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 소년은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은 성경에 푹 빠졌고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서 마치 그가 실제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일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깊이 빠졌을 때 느낀 그 감동이 그 소년을 정말 영적으로 살아 있게 했습니다.

6.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성경 읽기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약혼자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한 젊은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그 약혼자로부터 한통의 러브레터가 그 여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약혼자가 보낸 러브레터를 어떻게 읽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길봉투를 찢고 굉장한 궁금증을 갖고 편지를 빠르게 끝까지 읽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그 편지를 다시 읽는데, 이번에는 매우 천천히 읽습니다. 그녀는 그 안의 모든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사랑스럽게 모든 표현들을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혼잣말을 합니다. “편지 속에 쓴 ‘나 지금 잡은 이 손 절대 놓지 않을게’ 이 표현은 무엇을 뜻할까?” 심지어 편지 읽기를 읽고 난 뒤에도 그녀는 편지 속에 담긴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7.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경을 읽기 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시편119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것은 기도의 좋은 예가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성경 말씀에 대해 바른 이해를 주신 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딤후2:7). 성경 읽기를 다 마칠 때 실제적인 영적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 여러분이 읽은 진리를 삶속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프만(J. Wilbur Chapman)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몇 가지 제안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 성경을 철저히 공부하세요! 성경에서 한 구절을 마스터하기 전까지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공부한 페이지 혹은 구절이 여러분의 일부가 되기 전까지 성경을 한쪽에 치워 두지 마세요.
- 메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성경의 여백이나 노트에 기록하세요.
- 일하여 드러내세요. 하루의 매시간 아침에 여러분이 얻은 진리대로 살아가세요.
- 전하세요.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 시민, 아버지, 남편이 되게 할 것이다.” - 토마스 제퍼슨-

8. 장별 성경 공부를 위한 질문들

- (1) 이 장에서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 (2) 이 장에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 (3) 이 장에서 핵심 구절은 무엇인가?
- (4) 이 장에서 주요한 인물은 누구인가?
- (5) 이 장은 그리스도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 (6) 이 장에서 내가 따를 어떤 예가 있는가?
- (7) 이 장에서 내가 피해야 할 어떤 잘못이나 죄가 있는가?
- (8) 이 장에서 내가 수행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는가?
- (9) 이 장에서 내가 주장할 어떤 약속이 있는가?
- (10) 이 장에서 내게 올리는 기도거리가 있는가?

“성경을 다른 좋은 책들로 대체하지 말라. 우물에서 나오는 지류에서 마시지 말고 우물 그 자체에서 직접 마시라.” - 에이미 카미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

“그래서 거룩한 말씀 위에서, 우리는 살고 먹고 자라네. 계속해서 주를 알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과하여 삶을 변화시켰는지가 중요하다.”

9. 벵겔(Johann Bengel)의 성경공부 3원칙

(1) 어떤 책들, 위대한 사람들, 어떤 공통의 의견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경만이 성경공부의 원천이 되게 하라.

(2) 성경 속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말고 읽으라. 이것은 성경을 편견 없이 보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성경이 기록된 대로 말하게 하라]

(3) 성경에 있는 어떤 것도 무시하지 말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딤후3:16).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네, 그것은 거룩한 생명으로 가득 찼다네.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 속 모든 단어 안에 살아 계시네,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말씀 위에서 움직이시네.”

-이 엠 와즈워쓰(E.M. Wadsworth)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성경 공부 하는 것을 사과 따는 일에 비유 했습니다. 처음에 나무 전체를 흔들면, 가장 잘 익은 사과가 떨어지고, 나무 가지에 올라가 줄기를 흔들면, 각각의 줄기를 흔들 때 모든 가지도 흔들립니다. 모든 잔가지를 점검한 이후에는 모든 잎을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각각의 책을 공부하고, 각 장을 공부하고 각 절을 공부하고 마지막으로는 각 단어를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성경 읽기 스케줄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한 안내

성경 읽기 스케줄 표 사용방법

일 년 동안 성경 전체를 읽기 위해서,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 읽기 모두를 스케줄대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전에는 구약을 저녁에는 신약을 읽어도 좋습니다. 혹은, 구약과 신약을 한 자리에서 모두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시간은 대략 30분가량 걸립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성경을 좀 더 천천히 2년에 걸쳐서 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약을 첫째 날에 신약을 그 다음날에 읽는 방식을 따라도 좋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정한 속도에 맞춰 읽기를 원한다면, 매일 읽은 장을 밑줄로 지우면서 읽어보세요.

주일학교 7학년 4과

성경의 전달 과정

이름 _____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씌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보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אֵלֹהִים בָּרָא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God created [when] beginning the In
.earth the and heavens the

신약은 원래 그리스어로 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스어는 영어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Ἐν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 καὶ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καὶ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and 'God 'was 'the 'Word.

성경을 우리말로 혹은 영어로 번역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다면 번역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말로 혹은 영어로 된 분명하고, 정확하고, 믿을 만한 번역이 있어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1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성경의 어떤 번역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번역자들은, 때론 총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연약하고 한계가 있으며 무지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번역자들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의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는 바른 영어 단어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직무였으나, 훌륭한 번역자들이 원본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실례: 사람의 몸무게를 재는데 사용하는 목욕탕 저울을 생각해 봅시다. 절대로 완벽한 목욕탕 저울은 없습니다. 저울에 보이는 무게는 그 사람의 정확한 무게와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울은 그 사람의 무게가 70kg 라고 보여주지만 그의 정확한 무게는 69.772kg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저울이 거의 정확한 무게를 주었다고 동의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오차는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저울은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람이 74.5kg나간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 만일 그 무게를 재 사람이 몸무게를 빼고 싶었다면 그 (혹은 그녀)는 이 저울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정확한 치수를 원했을 겁니다. 성경의 번역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번역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원본인 그리스어와 히브리 성경기록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되어져서

펜을 사용하여 씌어졌습니다(벤험1:21과 비교). 이런 원본들은 절대로 완벽했습니다. 어떤 번역들은 아주 정확해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본문을 아주 면밀하게 반영시켰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덜 정확해서 어떤 경우에, 그리고 어떤 구절에서는, 그리스어나 히브리 성경기록들을 잘못 표현하는 곳도 있습니다. 선포자가 (목사) 외국에 가서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통역자의 도움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통역자의 말들이 선포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정확한 의미를 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 통역자 때문에 일부 의미가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통역자의 기술에 달려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어를 말하는 세상에 아주 탁월한 번역들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위클리프 성경 (1382), 틴데일 성경 (1534), 위대한 성경 (The Great Bible) (1539), 제네바 성경 (1560; 이것은 청교도들이 사용했고 또한 셰익스피어의 성경이기도 했습니다), 감독의 성경 (The Bishops' Bible) (1568), 킹 제임스 성경 (1611), 등.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말씀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존하셨습니다. 그리스어 신약은 (각 원고는 적어도 신약의 한 부분을 포함하거나 어떤 원고들은 신약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도 함) 5,000개 이상의 원고들이 존재합니다. 가이슬러와 닉스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전통적인 글들은 아주 현저하게 성경의 원고 보존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알려져 있는 5000개 이상의 신약 원고들과 대비하여, 다른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고대의 책들은 중요성이 많이 바래지고 있습니다. 호머의 일리아드 643 복사본만이 원고 형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타이투스 라이비의 로마의 역사 원고는 20개만 있고 씨저의 갈릭 전쟁들(Gallic Wars)의 원고는 9개 혹은 10개만 알려져 있습니다. 투시디드의 펠로포네시안 전쟁의 원고는 8개만이 남아있고 타시투스의 업적들(the Works of Tacitus)은 오직 2개의 원고들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가이슬러와 닉스의 책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갖게 되었나?>의 139쪽).

번역의 질과 정확도는 번역자에 달려있습니다. 번역자가 성경을 사랑하며(시119:97)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며(사66:2),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을 믿는 사람이며(딤후3:16), 성경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며 원어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원어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번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번역자가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의 위대한 진리들을 -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천국과 지옥 등 - 거부하고 성경의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런 것들이 확실히 그들의 번역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현대 번역들의 문제점

수정판 [THE REVISED VERSION] (1881)

디모데 후서 3장 16절 -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모든 성경기록은 또한 가르치는데 유익하다....” 이것은 성경의 어느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시오.

개정 표준판 [REVISED STANDARD VERSION] (1952)

이사야 7장 14절 - “젊은 여인이 수태할 것이다” 이 구절을 바르게 번역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오. 번역자가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이사야 7장 14절을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여자가 수태한다는 것이 어디에도 기적적인 면은 없습니다. 이것은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녀가 수태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히 초자연적 일이었습니다.

시편 2장 12절 - “그의 발에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여기 시편 2장 12절의 번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 “족장에 속하며, 인종으로서, 육신으로는, 그리스도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어다. 아멘.” 로마서 9장 5절을 킹 제임스 역으로 읽으시면 당신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개정표준판은 이것을 가르칩니까? 다른 모든 현대 역본들도 이 구절을 같은 식으로 가르칩니다. 재-구두점(re-punctuation!)의 영리한 게임이죠! 롬 9장 5절에 대한 우리의 과제를 보시오.

뉴 잉글리시 성경 [NEW ENGLISH BIBLE] (1970)

시편 22장 16절 - “그들이 나의 손과 발들을 난도질 했다.” 이것이 십자가 처형에 대한 설명같이 보입니까? 킹 제임스역과 비교해 보시오.

이사야 9장 6절 -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으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 권세를 메었으며; 그는 목적으로는 [놀라우신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과 같으신 이],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로 불리실 것이라.” 그분은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킹 제임스 성경과 비교)입니까, 혹은 단지 하나님 같은 분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 -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 중 한 아들이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6-27절 -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 불리는 도시로 가서 요셉이라 불리는 남자와 약혼한 소녀에게 이르렀더라.” 그리스어는 “소녀”가 아닌 “처녀”를 의미합니다.

현대인을 위한 기쁜 소식 [GOOD NEWS FOR MODERN MAN] (TODAY'S ENGLISH VERSION)

에베소서 1장 7절 - “왜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즉 우리의 죄들이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리스어 단어는 “죽음”이 아니라 “피”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 “그는 소녀에게 전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모든 소녀들이 처녀들은 아닙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소녀”가 아닌 “처녀”를 의미합니다.

기독교 상담사의 신약 [THE CHRISTIAN COUNSELOR'S NEW TESTAMENT] (제이 아담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죽었음을 믿지 않음)

디모데 전서 2장 6절 -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그분 자신을 주셨으니.”

히브리 2장 9절 -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란 그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들, 부유하고 가난한 자들, 종들과 자유인들 등을 의미할 수 있으나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킹 제임스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때 정확합니다(예외 없이). 당신은 이 사람의 신학적 결함이 그의 번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셨나요?

거룩한 성경의 신세계 역본 (NEW WORLD TRANSLATION OF THE HOLY SCRIPTURES) (여호와와의 증인)

요한복음 1장 1절 - “말씀이 신이었다.” 여호와와의 증인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셨음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 “진실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킹 제임스 역과 비교하십시오. 여호와와의 증인은 성도가 죽으면 그가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혼이 부활 때까지 “잠을 잔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그들은 이 구절의 구두점을 교묘하게 다시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번역은 어리석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말한다면 우리는 그가 그것을 어제 말했다고 생각합니까? “진실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쓸데없는 반복의 본질입니다!

현대의 바꾸어 말하는 성경 번역의 문제점

성경을 주의 깊게 번역하는 것과 바꾸어 말하는 방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 구절 하나를 취한 후 그것에 그 자신의 말들을 넣는다면 그는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사람의 말**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번역사들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쓰이는 말들을 매우 꼼꼼하게 선택하여 의도하고자 하는 뜻에 아무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세심하게 작성한 계약서를 아무도 바꾸어 말하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으며 그런 중요한 서류들로부터 한 단어도 더하거나 빼는 것을 거부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에 함부로 손대는 자들에 대해 매우 심각한 경고들을 주셨습니다(계 22:18-19; 신4:2; 잠30:5-6 참조).

리빙 바이블 (The Living Bible)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 성경 중 가장 유명한 것 중의 하나는 케네스 테일러(Kenneth N. Taylor)의 리빙 바이블입니다. 리빙 바이블 (밑에 주어진 대로)로 마가복음 1장 1-7절을 검토하고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정확하고 세심한 번역)과 비교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몇 단어들이 제거된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케네스 테일러가 추가한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 1) 여기에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 2) 이사야 대언자에 의해서 씌여진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을 땅으로 보내실 것과 또한 그분의 오심을 위해 먼저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 사자가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 3) “이 사자는 불모의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고” 라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의 삶을 곧게 해야 한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 4) 그는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았고 모두가 죄에 대해 그들의 등을 돌린다는 결정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 5)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듣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나왔고 그들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할 때 그는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 6) 그의 옷들은 낙타털로 만들어졌고 그는 가죽 띠를 띠었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습니다.
- 7) 여기에 그가 선포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나보다 훨씬 위대한 어떤 분이 오고 계십니다, 너무 위대해서

나는 그분의 종이 될 자격조차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실제로는 바꾸어 말하여진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성경(케네스 테일러 자신의 말들로 옮겨진 성경)을 읽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케네스 테일러의 말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여기에 리빙 바이블에서 발견된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 20장 30절 - “너는 개자식” 사울이 썼던 말이 아주 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신은 그런 언어가 성경에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나중에 리빙 바이블 판들은 이것을 바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 “아마도 그는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변기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한 더 나은 번역을 위해서는 신 미국 표준 성경 (New American Standard Bible - NASB)이나 신 국제 성경(New International Bible- NIV)을 보시오. 히브리 본문은 “변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변기”란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집의 배관 설비와 관련된 물 내리는 변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고대의 세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뉴 리빙 역 (The New Living Translation)

뉴 리빙 역(The NEW LIVING TRANSLATION- NLT) (1996)은 리빙 바이블의 학술적인 개정이며 또한 바꾸어 말한 개정판입니다. 그것은 “전체 생각(단순히 단어들)을 자연스러운 일상의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추구합니다(NLT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노트”에서 왔음). 이와 대조하여, 킹 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본의 단어 대 단어로(대부분이) 번역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NLT) -- “사울이 분노로 끓어오르며 요나단에게 너 어리석은 매춘부의 아들!” NIV는 더 정확하고 위엄 있는 표현을 씁니다: “사울의 분노가 요나단을 향해 타올라 그에게 ‘너, 사악하고 반역하는 여인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3)

중립적 성을 가진 성경들

너무나 많은 면에서 우리의 사회에 스며들었던, 과격한 남녀동등권 주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왜곡하고 부패시키고 바꿔놓고 있습니다(벧후3:16과 비교).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약자로 TNIV (2005)인 오늘의 신 국제역 (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이 번역은 성경에 나오는 성, 특별히 남성을 중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하는 왜곡된 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는/그를/그의/그 자신”을 “그들은/그들을/그들의/그들 자신”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성 대명사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같은 이유로 “그는/그를/그의/그 자신”을 “당신은/당신의/당신 자신”으로 바꿨습니다. 3) 여성 신자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형제”는 “동료 신자”로 바꿨습니다. 4) “자매들”이란 말은 원본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데 “형제들”(복수)을 “형제들과 자매들”로 바꿨습니다. 5) “형제들”(복수)은 “믿는 자들”로 바꿨습니다. 6) “남자” 혹은 “남편”은 “다른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7) “남자들”(복수)은 “사람들”로 바꿨습니다. 8) 남자 인간(대제사장)을 지칭하는 히브리서 5장1절조차 “남자들”(복수)을 “사람들”로 바꿨습니다. 9) “아들”(단수)은 “아이”로, “아들들”(복수)은 “아이들”로 바꿨습니다. 등등.

다음은 TNIV에서 발견된 부정확한 번역 몇 가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 분석은 '성경적인 남자와 여자다움 공회'(CBMW)⁴⁾에 의한 것이며 그들의 웹 사이트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거기에선 여러 다른

3) NLT의 각주는 NIV 표현이 정확하다고 인정하지만 충격 효과나 드라마 같은 반전을 위해 그들이 주된 본문에서 무미건조한 말로 바꾼 것을 유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4) the Council of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 창세기 5장 22절

킹 제임스 역: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의 이름을 아담(남자)이라 부르시니라.

TNIV (2005):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을 “인간”이라고 부르셨다.

뜻의 변경: 하나님의 이름 지으심은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여기 TNIV는 남성 중심의 이름인 “남자”를 사용하기 거부하고 인간의 이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나 앞의 네 개의 장에서는 동일한 이 단수 히브리 단어 “아담”은 여자와 구별된 남자를 지칭하기 위해 8번이나 사용되었고(창2:25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에서처럼), 또한 적절한 이름 “아담”으로는 5번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독자들은 창세기 5장 22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 분명한 남성적 뉘앙스를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남자”가 가장 훌륭한 영어 번역입니다. TNIV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이름의 남성 중심의 측면을 부당하게 제거했습니다.

TNIV 지지자들은 그런 바꿈이 필요한 것은 영어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의 머리기사에서 최근의 쓰나미에 대해 “남자, 자연 그리고 재앙” 이라고 적은 것처럼, “남자”가 인류를 의미할 수 있다고 여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4.12.28. A10쪽).

절: 잠언 13장 1절

KJV: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TNIV: 지혜로운 아이는 부모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에 반응하지 않는다.

뜻의 변경: 히브리어 ben (단수)은 “아들”을 의미하지 “아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ab(단수)는 “아버지”를 뜻하지 “부모”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TNIV는 히브리 단어들과 일치하는 가장 좋은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같은 뜻의 가장 좋은 영어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그런 번역의 선택은 단순한 영어 단어 “아버지”, “아들”, “형제”, “남자”와 “그는/그를/그의”와 관련하여서 TNIV에서 수백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에서 성경은 일반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남성의 예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TNIV는 본문의 남성다움을 제거합니다. 물론 지혜로운 딸도 그녀의 어머니의 훈계를 아버지처럼 들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적용이지 번역이 아니고 그것은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TNIV는 이 구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 반대하는 걸까요?

절: 누가복음 17:3

KJV: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TNIV (2005): 만일 형제나 자매가 네게 죄를 짓거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라.

뜻의 변경: “혹은 자매”란 단어들이 성경 안으로 삽입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그리스어 본문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성경은 야고보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원하면 “형제 혹은 자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과 “그들은”이란 단어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수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수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나쁜 문법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의사소통을 방해합니다. 또한 그리스어 원문이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대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NIV는

단순히 “그를”이라는 불쾌한 단어를 피하기 위해 언어학적 체조(재주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를”은 그리스어 대명사 남성 단수를 번역함에 가장 정확한 형태입니다. 물론, 나는 방탕한 아들의 비유가 방탕한 딸들에게도 적용되고, 그리고 “너는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출20:17)가 또한 당신의 이웃의 남편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만일 너의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이 또한 죄 짓는 자매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동의합니다(그리고 TNIV는 이런 구절들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 세기동안 이것을 쉽게 이해해 왔습니다: 성경이 개별적으로 남자나 여자에게 일반적인 원칙을 가르치기 위해 한 예를 사용한다면 그 원칙은 또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혹은 자매”라는 단어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어 본문에 근거가 없는 예수님의 단어들에 어떤 것도 추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변경들로 인하여, TNIV는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엄격히 금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22:18).

신성 모독하는 괴짜 번역들 (Blasphemous, Weirdo Translations)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의 한 예는 나사렛의 유다 그리스도 (Judith Christ)로 불리는 신성모독의 역인데, 성경의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으로부터 발췌된 것이며, 예수님께서 여자였음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되었고 LBI 연구소에 의해서 작업되었습니다. 이런 이단 역본은 예수님을 “나사렛의 유다”라고 말하고 “탕자 딸의 비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님의 기도 대신에 “여자의 기도”를 넣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주 경솔하게 부패시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찬양받으셔야 할 분을 공격한 사람(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언젠가 이 사람은 그가 왜곡시켰던 바로 그 말로 인해 멸망에 이르도록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12:48).

고어들의 문제

킹 제임스 역(흙정역)은 350년보다 전인 1611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유명한 번역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많은 성경 신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고 현대의 어떤 번역도 킹 제임스 역만큼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킹 제임스 역본의 문제들의 하나는 일부가 이제는 “고어체”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나고 세기들이 지나는 동안 영어는 점차 변해서 어떤 단어들은 더 이상 그들이 1611년에 사용했던 뜻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들은 진부해졌거나 더 이상 쓰지 않고, 비록 그들이 1611년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킹 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된 진부하거나 구어체 단어들의 일부 예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1절 (ouches=settings 세팅); 신명기 21장 4절 (eared=plowed 쟁기질하다, 갈다); 사무엘 하 14장 26절 (polled his head=trimmed or cut his hair 머리를 다듬거나 자르다); 시편 7장 16절 (pate=head 머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conversation=manner of living 삶의 태도, 행실); 욥기 41장 18절 (neesings = sneezing 재채기하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eschew=avoid 피하다, turn away from~로부터 돌리다); 사도행전 7장 40절 (wot=know 알다). 다른 예로,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나오는 “감독”이란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감독”이란 단어를 쓸 때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1611년에, 영국 교회의 민생위원이 “감독”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당신이 킹 제임스 성경의 좋은 스터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고어들은 여백에 설명되어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것 중 가장 훌륭한 번역!

그대는 어떤 사람들이 읽을 유일한 성경입니다 (고후3:2-3). "나는 이웃의 성경입니다, 그는 우리가 만날 때 나를 읽습니다; 오늘 그는 나를 나의 집에서 읽고 내일은 길에서 읽을 것입니다. 그는 친척이거나 친구일 수 있겠죠. 혹은 약간 아는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그는 나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읽을 때 그들은 바르고 정확한 번역을 읽습니까? 당신이 읽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읽을 때, 그들은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역본들에 대해 실제적이고 마음에 드는 우수함이나 번역의 충실함에 대해, 문제의 처리방식, 혹은 문체까지도 칭송을 받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성경의 가장 좋은 역본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남자와 여자를 의미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의 도움을 느껴보지 못했거나 만군의 주에 대한 믿음 외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회오리바람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읊거나 시편의 절묘한 시가서를 말하는 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개인적인 경험의 영과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산상 설교를 칭찬하는 것은 다만 허튼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분 자신을 당신의 삶 속으로 나타나시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죄인들이 당신을 볼 때 그것은 죄 많은 여인을 위선적으로 고소한 자들에게 구원자의 말씀같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 마음 속 깊이 정죄함과 찌름이 그들의 혼들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에 의해 씌어져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는 살아있는 글자들이 되었으면 !!

—플로리다 크리스천 옹호자

사람들은 언제나 변함없고 진실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고 감탄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당신에 의하면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진실 되도록 하시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읽게 될 유일한 복음입니다,
당신에 의한 그 복음.

개인적인 간증. 나는 웨슬레이안(Wesleyan) 대학 캠퍼스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특히 요한복음과 바울 사도의 서신서등을 읽은 결과로 나는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읽은 번역본은 RSV 였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내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나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으며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행16:30-31).

지금은 RSV를 누구에게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주의자들이며 성경기록의 영감

에 대해 높은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 번역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번역자들의 자유주의적 편견은 많은 곳에서 번역을 부패시켰습니다(사7:14 등). 오늘 나는 킹 제임스 역본을 가지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번역을 사용하셔서 나를 그분께로 오게 하셔서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4-18절과 로마서 5장 6-10절을 RSV 역본으로 읽어보세요. 당신은 복음의 메시지가 그러한 오류가 있는 역본을 통해서도 멀리 비추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죠지 젤러 (George Zeller)

우리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것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3장 (“우리가 우리의 성경을 어떻게 얻었나?”)을 배우게 될 때, 우리가 그 성경기록들을 우리의 평범한 언어로 번역되어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아주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7학년 5과

성경 지리

이름 _____

성경은 상상속의 인물들이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를 믿도록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네버 랜드’에 사는 주인공 피터 팬이나 ‘원더랜드’에 사는 엘리스 같은 인물을 그린 동화책들) 오히려 성경은 지구상에 존재한 실제적인 장소에서 살았던 실제적인 사람들의 참된 기록입니다. 이 사람들(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누가)은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제 도시와 실제 나라, 실제 산과 실제 강 주변에 살았습니다. 지리학은 ‘지구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성경 속 사건이 발생했던 지구상에 장소들을 함께 공부하고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몰몬경과 성경

몰몬교회의 설립자인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몰몬경이 ‘지구상의 어떤 책보다 가장 정확한 책’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고고학자들은 아메리카대륙에서 오래 전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몰몬경 발굴 사건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계속해서 실패해 왔습니다.

나는 스미스소니언 협회에 몰몬교들의 주장을 뒷받침 해줄 어떤 증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서면으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내가 들었던 답변은 그 고고학자들이 보기에 “세계의 고고학과 그 책의 주요한 문제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도 없다”는 명백한 말뿐이었습니다.

작가 존 앵커버그와 존 웰돈 역시 그 주제에 관해서 자신의 책에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어떤 도시도 존재한 적이 없고 몰몬경 속 인물도, 장소도, 나라도, 이름도 발견된 적이 없으며 몰몬경 속 어떤 인공물도 어떤 기록도, 비문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한 적이 없었고 다만 그것들은 신화 같이 지어낸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점에서 매우 다릅니다. 호주의 고고학자 클리포드 윌슨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신약성경이 분명하고도 정확한 원천의 책으로서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또한 그가 쓴 성경 지리에 관한 책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행전 뿐 아니라 누가복음도 수많은 지리학적 위치에 대한 참고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신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누가가 양심적으로 정확한 역사가처럼 심지어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잘 써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 저명한 고고학자는 누가가 참조한 것 즉 32개의 나라들, 54개의 도시들, 9개의 섬들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았으며 단 하나의 실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누가가 역사적 기록을 아주 공들여서 정확하게 기록했다면,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기록하면서 부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논리적 기초는 없습니다. [From The Case for Christ by Lee Strobel, pages 107, 98-99]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아메리카’라고 불리는 지구의 땅의 일부에 대해 꽤 친숙합니다. 우리는 북아메리카의 큰 도시들(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큰 강들(미시시피, 허드슨, 콜로라도 강), 큰 산맥들(로키 산맥, 화이트 산맥, 스모키 산맥), 큰 호수나 바다들(대서양, 그레이트 레이크,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 등), 큰 나라들(미국, 캐나다, 멕시코)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아메리카 사람으로서) 우리는 ‘중양아시아’라고 불리는 세계의 또 다른 일부분에 대해서는 덜

친숙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세계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 불안한 지역들에 대해 많이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렇습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또 다른 지역 -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지역으로 고대 문명발생지 -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때 세상의 한 국가였던 로마제국(지중해가 땅의 경계선일 정도로 거대했음)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성경의 지명들입니다. 여기에서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의 이 지역과 좀 더 친숙해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들에 답을 해보고 지도상에 그 답에 해당되는 곳을 표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뒤쪽에 보면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1.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미가5:2)

답: _____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지만 중요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세계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태어난 곳입니다.

2.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도시에서 소년으로 자라고 어디에서 젊은 청년으로 지냈습니까? (눅2:39,51-52)

답: _____

신약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의론자(무신론자)들은 그 시대에 그러 이름의 마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편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걸은 적이 없는 곳’이라는 글에서, 무신론자 진들러(Frank Zindler)는 나사렛은 구약에서도 언급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탈무드도 -비록 63개의 다른 갈릴리 도시들은 언급했지만 - 혹은 요세푸스도 - 현재의 나사렛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자파(Japha)를 포함해 45개의 다른 갈릴리 지역의 마을과 도시들을 목록화했던 인물 - 나사렛이란 마을의 실존 여부를 부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복음서 기록자들이 실존하지 않은 상상 속의 도시를 만들어 냈을까요? 증거들은 사실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무너지자 제사장들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지역들, 심지어 갈릴리 지역으로까지 보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24개의 제사장 계열 혹은 가족들이 재배치되었으며 그중 한 계열의 제사장들이 나사렛으로 이주했음을 보여 주는 아람어로 된 기록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이 작은 마을 나사렛이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덧붙여서, 나사렛 인근에는 1세기 무덤들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유물이 있는데, 그것은 마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매장은 마을 밖의 적절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고고학자 피네간(Jack Finegan)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출판한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합당한 결론을 제공해줍니다. “무덤들을 통해서...나사렛이란 마을이 로마제국 시대에 확실히 유대인들의 거주지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정확함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From The Case for Christ by Lee Strobel, pages 102-103]).

3.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도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계11:8) _____

이 도시는 언젠가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다. (사2:2-3)

4.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어디에 서실 것인가? (슌 14:4) _____

5. 노아의 방주가 정착한 곳은 어디인가? (창8:4) _____

6.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가 살던 원래 고향은 어디인가? (창11:31)

-
7. 요셉은 어디서 노예로 팔렸는가? (창37:36) _____
8. 어느 강 속으로 이스라엘의 사내아이들이 버려졌었는가? (출1:22) _____
9.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에 의해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큰물을 통과하였는가? (출 14:21-22) _____
10. 어떤 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졌는가? (출19:20, 출20장) _____
11.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큰물을 통과하였는가? (수3:14-17)
-
12. 엘리야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서 바알의 대언자들을 패배시켰는가? (왕상18:19-20)
-
13.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가? (욘1:1-2) _____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가기를 원했었는가? (욘1:3) _____
14. 어떤 큰 물 속에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가? (욘1:11-12) _____
15. 다니엘은 어떤 나라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가? (단1:1) _____
16. 에스더 왕비는 페르시아의 어떤 도시에 살았는가? (에스더1:2) _____
17. 예수님께서서는 어디서 침례를 받으셨는가? (마3:13) _____
18.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디에서 물고기를 잡았는가? (마4:18) _____
19. 로마제국의 수도는 어디였는가? (행28:14) _____
20. 바울이 여행 도중 구원받았을 때 그는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행9:2-3) _____
21. 어떤 큰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는가? (행13:1-3) _____
22. 고린도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는가? (고전1:2) _____
23. 어떤 섬에서 바울이 난파되었는가? (행28:1) _____
24. 어디에서 바울이 디도 목사를 보냈는가? (딤후1:5) _____
25. 계시록 책을 쓸 때 요한은 어디에 있었는가? (계1:9) _____ 어떤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은 _____ 편지를 _____ 썼는가? (계1:4,11)
-

성경에 있는 지도들을 활용하는 방법

- 1) 성경의 지도들은 번호를 넣어야 한다. (지도1, 지도2 ..등등)
- 2) 지도 색인에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도시나 지역을 찾아보라.
- 3) 지도 색인은 어떤 지도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인지를 말해 줄 것이다.
- 4) 지도 색인은 여러분에게 그 지도에서 찾는 위치가 어디인지 말해 줄 것이다.
- 5) 여러분의 주일학교 교사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는지 보여 줄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 지리에 대해 더 많이 공부 할수록, 여러분의 성경이 좀 더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방문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경 지리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은 좀 더 성경의 땅들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고 마치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실제 세상에 살고 있는 실제 사람들에게 너무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실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일학교 7학년 6과

성경의 풍습들

이름 _____

우리는 중동지방이나 지중해 지역의 성경 시대의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많은 방식들이나 풍속들에 대해 대체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여행하고, 옷 입고, 농사짓고, 요리하고, 먹고, 일하고, 예배드렸던 방식이 때로는 우리에게 매우 이상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수천 마일 (거리의 차이)과 수천 년(시간의 차이) 떨어져 있습니다(거리의 차이). 당신이 외국에서 즉 영국, 프랑스, 독일 혹은 스페인에서 일 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익숙해져 있던 것과 어느 정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발견할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까?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250년 전으로 돌아가 조선시대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사는 방법이나 스타일에서 어떤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차나 비행기, 트랙터, 자전거, TV, 라디오, 컴퓨터, 신문, 전화, 휴대폰, 인쇄기, 냉장고, 음료수, 패스트푸드점, 승강기, 손목시계, 일회용 아기 기저귀, 아기 젖병과 세탁기가 없는 삶은 어떨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 중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남자와 여지들에 대해서 읽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오늘날 하는 것처럼 소통하고, 여행하고, 시간을 말하고, 먹고, 씻고, 그들의 아이들을 키웠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매일 의지하는 ‘현대의 편리한 기구들’이 없이 이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이 과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수백 개의 풍습 중 세 개만 다루겠습니다. 현대적 사고방식과는 매우 다른 여러 가지 풍습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새로운 의미와 함께 생생해질 것입니다.

(1) 발 씻기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잘 포장된 인도 위를 건지 않았고 또한 우리가 오늘날 신고 있는 종류의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발에 샌들을 신었고 먼지가 많은 길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발은 모래와 먼지로 덮이고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목적지에 도달하면 발 씻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듯이, 이것은 비천한 일이라 보통 노예나 종들이 하였습니다. 사무엘기상 25장 41절에서 아비게일은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_____을 _____이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에 그녀는 다윗의 종들을 향해 그녀의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녀는 종들을 기꺼이 섬기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분의 샌들 끈들을 푸는 것조차 할 수없는 완전히 가치 없는 존재로 느꼈습니다(막1:7과 비교).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4-16절을 읽으며 발을 씻어준 자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어 놀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10절을 주의 깊게 보시오. “이미 _____(목욕한, 몸 전체 즉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었다는 의미) 자는 모든 곳이(그의 몸의 전체가 완전히, 전적으로, 목욕으로 씻겼다.) _____밖에 _____(이 단어는 몸의 어떤 부분을 씻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발) 필요가 없느니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풍습을 말하고 있습니까? 손님은 잔치자리에 오기 전에 목욕을 했어야 하고 도착하면 발만 씻으면 됩니다(목욕한 집에서 잔치 집까지 오는 동안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영적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베드로는 이미 구원의 목욕을 했으므로 (딤후3:5-- “다시 태어남의 _____”) 깨끗하게 씻겼습니다(고전6:11). 그의 모든 죄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 용서 받았습니다. 성도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걸을 때마다 그의 발은 더러워지고(요일1:8,10), 그래서 매일 깨끗하게 되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러운 발을 가진 제자나 동반자와는 관계를 갖지도 않으시고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요13:8).

질문들

어떤 제자가 여전히 더럽고 구원의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13:10-11) _____

당신은 구원의 목욕을 했습니까? _____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압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불결한 사람을 그분의 왕국에 허락하십니까? (엡5:5; 요3:5과 비교) _____

성도는 자기의 발을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요일1:9)

누가 씻어줍니까? (요일1:9) _____

(2) 옷 찢기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당신의 가족과 함께 어느 날 저녁 도시로 갔다고 상상해 보시오. 식당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식당을 떠나 당신의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당신이 사는 동네에 접근했을 때 그 길이 차단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멀리서 빛이 번쩍이는 것도 보게 됩니다. 당신은 근처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당신은 소방차들을 보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밤하늘에 불길기 치솟는 것을 봅니다. 누구의 집일까요? 당신이 더 가까이 가보니, 당신의 집이 불에 타고 있으며 모든 재산이 불 속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 때 최악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당신에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으리라 생각합니까? 만일 당신이 성경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아마도 당신의 옷을 찢었을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어떤 재앙 혹은 재난에 대한 근심과 고통에 대한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죽은 사람에 대한 깊은 애통과 애도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때로 그것은 죄에 대한 거룩한 분개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런 풍습이 성경 시대에 어떻게 실제로 행해졌는지 알기 위해 다음을 서로 짝지어 보기 바랍니다.

1. _____ 창세기 37:29
2. _____ 창세기 44:12-13 A. 어떤 고난이나 재앙에 대해 고통의 표시
3. _____ 사무엘 상 4:11-12
4. _____ 사무엘 하 3:30-31 B.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 애통함을 표시
5. _____ 사무엘 하 13:30-31
6. _____ 열왕기하 18:37 (예루살렘 이 강력한 아시리아 왕에게 침략당할 시점이었습니다.) C. 죄에 대해 의로운 분노의 표시
7. _____ 역대기하 34:24-27
8. _____ 에스라 9:3
9. _____ 마태 26:65 (물론, 주님은 이 죄에 대해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10. _____ 사도행전 14:14 (창조물을
섬기는 죄)

주의: 옷을 찢는 것은 옷 전체를 조각내는 것이 아니고 보통 옷의 아래 부분의 터진 부분을 찢는 정도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죄에 대해 근심하거나 애통하는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지만 참으로 마음 속 깊이 회개하거나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것을 포장하려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_____을 찢지 말고 너희 _____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_____.” (욥2:13)!

오늘날도 사람들은 겉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분과 다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막7:6과 비교) _____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삼상16:7 비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겉모습일까요, 속모습일까요? (시 51:6,16-17) _____ 만일 ‘속사람’이 옳다면 ‘겉사람’도 옳을까요? (시편51:16,17,19과 비교)

(3) 소금 사용

성경 시대에 소금은 두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첫째 소금은 지금처럼 음식에 맛을 내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어떤 것은 맛을 잃습니다. 무엇일까요? (욥6:6) _____ 소금은 이처럼 음식의 맛을 냅니다.

그러데 성경 시대에 소금은 다른 용도로도 쓰였고 우리 현대인들인 이에 대해 익숙하지 않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기 위한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음식의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의 _____.” 이 세상은 그 안의 사람들이 죄성을 점점 더 드러내면서 점점 더 악하고 부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은 도덕적 영적 부패를 막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삶은 악의 세력을 제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갈 때 그들은 더러운 이야기를 멈춥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경건한 제사장으로서 요아스 왕 시대에 소금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에 요아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대하24:2)

_____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소금이 없어지자 요아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하24:15-22) _____

이제 당신의 삶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부패시키고 있습니까? 부패를 막고 있습니까? 당신은 부패를 막는 소금입니까? 아니면 썩는 음식입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당신이 썩지 않도록 제약하고 있습니까? 당신도 다른 사람이 썩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른다면 이 세상은 부패가 될까요? 아니면 더 좋게 될까요?

혹시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 시대의 다른 관습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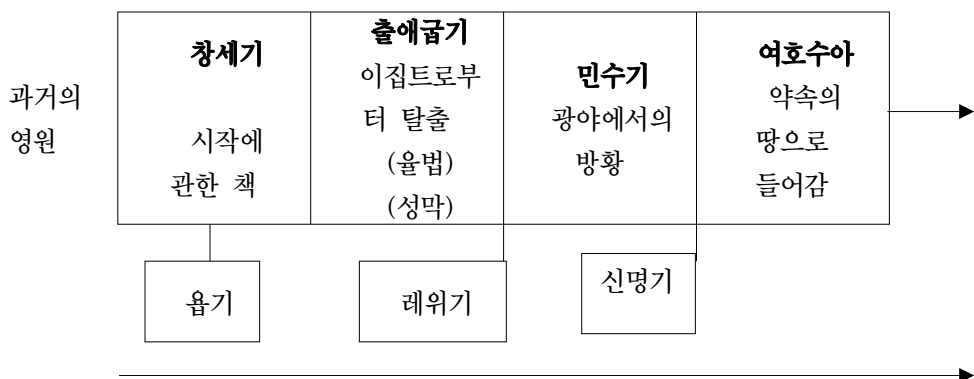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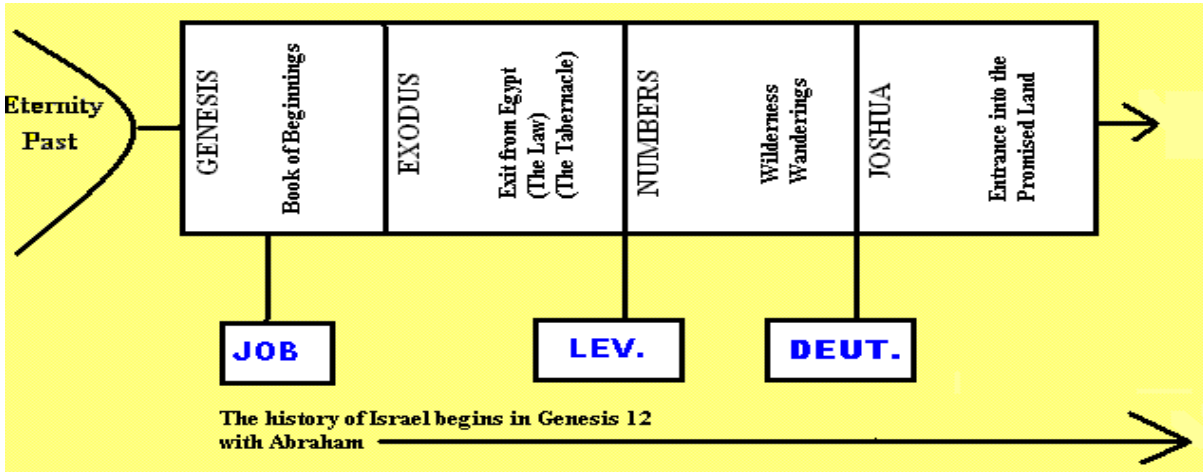
주일학교 7학년 7과
구약 성경의 책들1)

이름 _____

흠정역 성경에 있는 연대기 그림 설명

이번 장에서는 먼저 한영대역, 스터디 성경 부록에 있는 구약성경의 연대기를 설명하도록 함.

다음 연구는 구약성경이 어떻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세계의 초기의 역사와 이스라엘 국가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들을 가지고 시작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되다

위에 있는 네 책은 세상의 창조부터(창세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여호수아)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도표 하단의 세 책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쓴 것이

1) 이번 과는 2-3주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해야 함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만 합니다.

욥기는 가장 일찍 기록된 책 중에 하나이고 창세기에서 세상의 초기 역사를 다루는 동안에 발생했던 사건을 다룬 책입니다. 몇몇 신자들은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예배(제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지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책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창세기(Genesis)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것은 우주(하늘들과 땅)의 시작과 남자와 여자의 시작, 결혼의 시작(오늘날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혼을 제정하시고 정의하셨는지를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자녀들의 시작, 죄의 시작, 죽음의 시작, 동물 희생제물의 시작, 살인의 시작, 도시의 시작, 나라의 시작, 언어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시작을 다룹니다. 창세기는 6일 창조로 시작하고 요셉이 죽는 때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부분은 다음 표현으로 지시되어집니다. “누구의 세대는 이러하다.”

출애굽기(Exodus)는 ‘탈출’을 뜻함, ‘출구’(Exit)라는 단어와 비교)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대규모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동시키신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십계명이 있는 출애굽기 20장 참조)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런 장막 인 성막에 대한 자세한 청사진을 다루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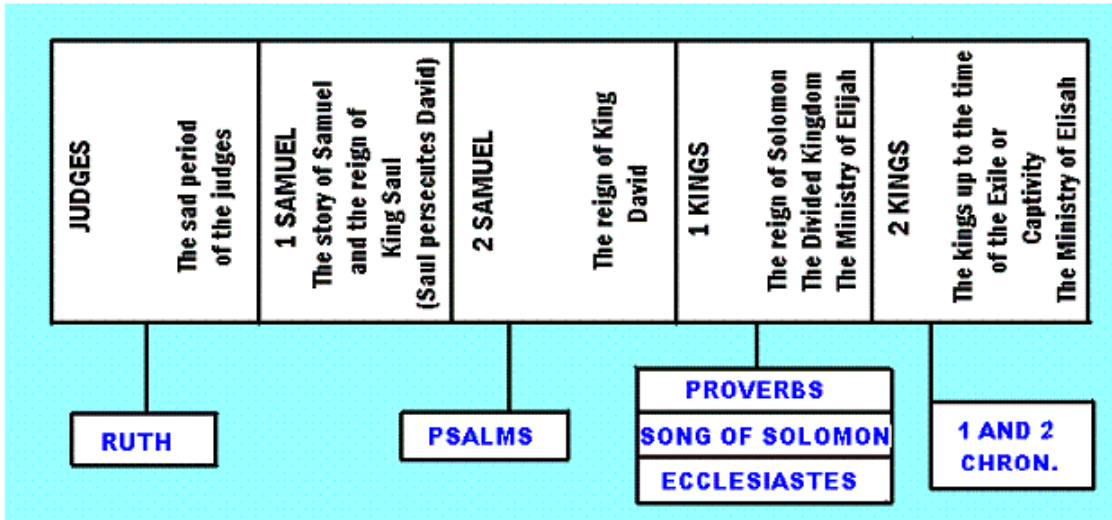
민수기(Numbers)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방황했던 삶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인구수를 조사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이 민수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기(Joshua)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정복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거인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기게 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욥기(Job)는 대략 B.C. 2000년경에 쓰인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베헤못(욥기40장)과 리워야단(욥기41장)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그 당시에 지구상에 살았던 거대한 공룡(베헤못은 육지 위에서 혹은 육지 근처에 살았고 리워야단은 바다에 살았음)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로서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하기 전에, 공룡들이 이미 수백 만 년 전에 모두 멸종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의 모순을 들어냅니다. 욥기는 사탄에게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혹독하게 테스트하신 신실한 사람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의로운 자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레위기(Leviticus)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 뿐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책을 통해서 예배에 관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단어는 ‘거룩함’(HOLY)인데, 이는 레위기 예서만 무려 80번 이상 발견됩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할 때 적절하게 거룩한 분위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경의와 존경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에서 45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은 “나는 주니라”(I AM THE LORD)입니다.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경솔하고 격식 없는 방식으로 혹은 그분의 인격을 가볍게 여기는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존엄에서 주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법’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기 얼마 전에 약속의 땅(이집트에서 탈출한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에 들어가려는 2세대에게 두 번째로 율법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담화 형식으로 말한 이 신명기에는 종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가장 큰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받으실 때 3번씩이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사기 재판관들의 슬픈 시대	사무엘기상 사무엘의 이야기와 사울왕의 통치 (사울이 다윗을 박해함)	사무엘기하 다윗왕의 통치	열왕기상 솔로몬의 통치 분열왕국 엘리야의 사역	열왕기하 포로기까지의 왕들 엘리사의 사역
룻기	시편	잠언 솔로몬의 아가 전도서	역대기상하	

위의 도표 상부에 기록한 5권의 책(사사기, 사무엘기상하, 열왕기상하) 모두 역사 흐름에 따라 기록이 되었습니다. 5권의 책은 재판관(사사)들의 시대부터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표 하단부에 쓴 책들(룻기,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역대기 상하)는 역사의 흐름대로 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사의 올바른 순서상에 위치시켰습니다. (시편은 다윗과 관련 연관되어 있고, 잠언은 솔로몬과 관련 있음)

사사기는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삿21:25) 라고 성경이 말하는 재판관들의 슬픈 역사의 시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는 30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은 경건한 사무엘과 불경건한 사울 왕을 대비해서 보여 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울이 왕이 되기에 부족했지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으로 유명한데, 그 일로 인해 사울 왕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기하는 다윗 왕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 뿐 아니라 그의 넘어짐과 죄악 - 밋세바와의 간음 사건-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삼하11:1-5). 다윗의 죄로는 밋세바의 남편을 제거하기 위해 살인적인 계획을 세운 것과(삼하11:6-27)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계수한 것이 있습니다(삼하24:1-9).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두 책 모두 솔로몬의 통치에서부터 바빌론 포로기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대략 400년간의 역사를 말합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처음 열왕기상11장). 솔로몬은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 왕의 지혜와 그의 왕국의 영화를 열왕기상 3장에서 10장까지 다루고 있으며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솔로몬의 영적 타락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은 것도 솔로몬이었습니다(5~8장).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왕국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뉘었습니다(12장).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대언자는 엘리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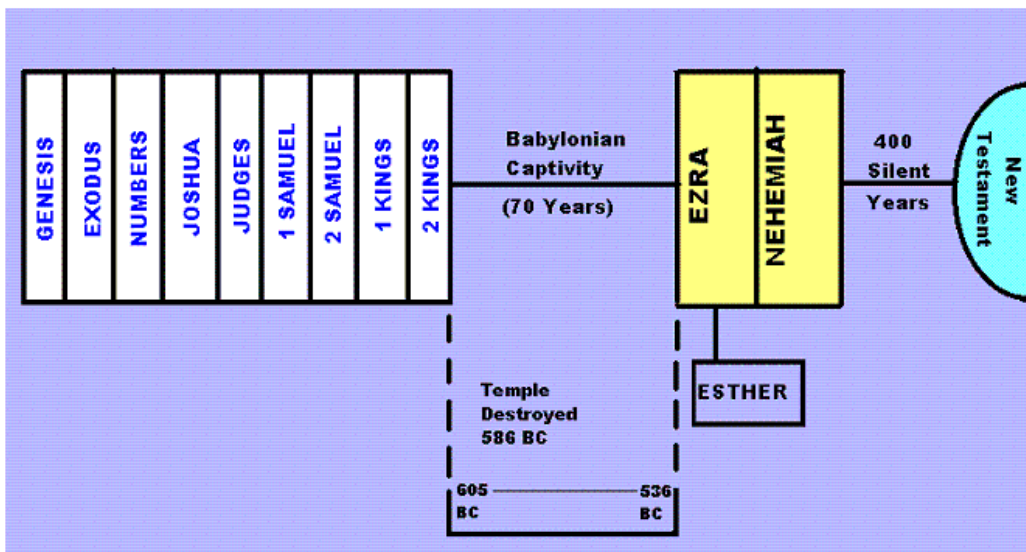
열왕기하는 계속해서 분단된 2개 국가의 역사에서 바빌론 포로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 우리는 아시리아(Assyria)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열왕기하17장), 바빌론(Babylon)에 의해서 남 유다 왕국도 망하는 것을 배웁니다(열왕기하24-25장). 열왕기하에서 유명한 대언자는 엘리사입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의 끝 무렵에 발생했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과 그의 남편이 그리스의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마1:5).

시편은 히브리 민족의 노래 책의 형태로 구성되었는데 특별히 다윗 왕이 시편의 많은 노래들을 지었기 때문에 시편과 다윗 왕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시편의 많은 노래들은 매우 개인적이고 귀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공훈의 풍성함을 깊이 목상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합니다.

잠언(간결한 표현으로 기록된 실제적인 지혜), 전도서(하나님을 떠나 '해 아래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인간의 헛된 노력),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사랑의 노래), 이렇게 3권은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 기록하였습니다.

역대기상은 다윗에 관련된 것을 주로 다루고, 역대기하는 솔로몬 왕에서부터 포로생활(바빌론 포로)까지 열왕기상하가 다루는 같은 기간에 유다 왕들의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바빌론 포로생활 (78년)	에스라	느헤미야기	400년 침묵의 시대	신약
									성전파괴 B.C.586	에스더기			
									B.C.605	B.C.536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미 언급한 9권의 책들(창세기에서 열왕기상하)과 함께 역사의 흐름에 따라 기록을 하였습니다. 에스더기에 있는 사건들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에스라 대언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발생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70년 바빌론 포로생활 이후에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실제로 두 권의 책이 한 권으로 된 것입니다. 첫째 책은 1장~6장이며 이것은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예수아에 관한 것들을 다룹니다. 둘째 책은 7-10장으로 서기관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책들 사이에는 58년이라는 시간의 공백(gap)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공백(gap) 사이에 에스더기에 기록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구약에서 역사 순서상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역사상 이 시기에 활동한 대언자는 말라기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생긴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이 책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3권의 책과 4개의 성경학적 진실의 문제

에스라서는 참으로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2권의 책이 하나로 된 것입니다. 첫째 부분은 6장까지이고 둘째 부분은 7장부터 11장까지 총 4장입니다. 6장과 7장 사이에 58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이후에 느헤미야에 있는 모든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3권의 책(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4명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 1) 스룹바벨 이야기(에스라1~6장)
- 2) 에스더 이야기(에스더기)
- 3) 에스라 이야기(에스라 7장~10장)
- 4) 느헤미야 이야기(느헤미야기)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에서 대언서(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루어보았습니다. 이 책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연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 대략 B.C. 2000년

모세: 대략 B.C. 1500년

다윗: 대략 B.C. 1000년

이스라엘의 초대 세 왕 - 사울, 다윗, 솔로몬 - 이스라엘 전체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된 상태였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대항하여 반역을 꾀하였지만 왕국을 빼앗는 데는 실패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왕국은 2개 국가로 분열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 - 유다와 베냐민 - 로 구성된 남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남 왕국은 남 유다로 불리게 됩니다(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보다 훨씬 컸음). 여로보암은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총 10개의 지파로 구성된 북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국도 나중에는 북 이스라엘로 불립니다.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은 종종 '에브라임'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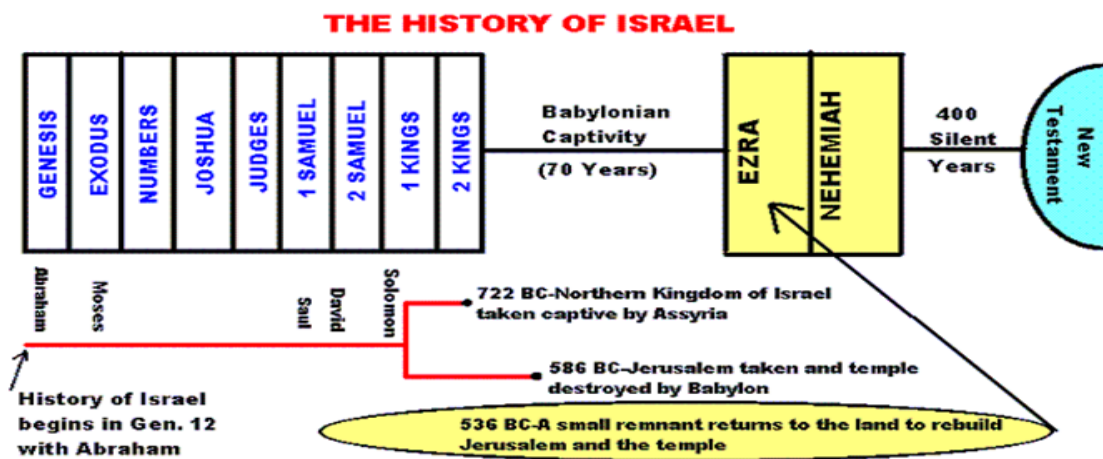
북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을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종종 이렇게

2) 참조 : 호세아와 그 밖에 다른 책에서도 이것을 발견함- 이사야11장23절

평가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니라.”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후 모든 왕들이 뒤따르는 악한 우상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붕괴되는 저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수도 사마리아가 정복됨으로써 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한편, 남 왕국 유다에서는 몇몇 선한 왕들 - 예를 들면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 그리고 몇몇 악한 왕들 - 이하시와 므낫세- 이 있었습니다. 남 왕국은 이웃한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오래 지속되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우상숭배와 유다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고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비록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3단계로 점령하였지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연도는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파괴된 B.C. 586년입니다.

다음의 도표는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바빌론 포로생활 (78년)	에스라	느헤미야기	400년 침묵의 시대	신약
-----	------	-----	------	-----	-------	-------	------	------	----------------	-----	-------	-------------	----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시작하다.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포로로 잡혀감

B.C.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됨

B.C. 536년 소수의 남은 자가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함

대언서들은 종종 큰 대언서와 작은 대언서로 표현됩니다. 물론 이것이 큰 대언서의 대언자가 작은 대언서의 대언자보다 좀 더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각 대언자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기록하였고 그들의 메시지는 원래 수신자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했었고 또한 그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중요합니다. 큰 대언서 혹은 작은 대언서라 하는 것은 단지 구약에서의 책의 두께(분량)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큰 대언서에 해당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각각 많은 장을 통해 많은 내용을 담은 긴 책들이고 작은 대언서는 상당히 적은 장으로 짧은 길이를 가진 책들입니다(오바다 같은 경우는 겨우 1장으로 되어 있음). 작은 대언서의 대언자들은 호세아부터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인 말라기를 끝으로 총 12권의 책을 썼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대언서의 모든 책들을 간단히 ‘대언자들의 글’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³⁾

구약의 대언서들을 분류하는 데 좋은 방법은 그것들을 바빌론 포로기와와의 관련성에 따라 목록화해 보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기 전에 씌어진 책들을 ‘포로이전 책들’이라고 부르고, 포로 기간에 씌어진 책들을 ‘포로기 책들’이라 하고, 포로기 이후에 씌어진 책들을 ‘포로 이후 책들’이라고 합니다.

THE PROPHETS IN RELATIONSHIP TO THE EXILE

605BC ————— 536BC		
Before the Exile	During the Exile	After the Exile
Obadiah Joel Jonah Amos Hosea Isaiah Micah Nahum Zephaniah Habakkak	Jeremiah-Lamentations Daniel Ezekiel	Haggai Zechariah Malachi

대언자들과 포로기와의 관계

	B.C.605	B.C.536
포로기 이전	포로기	포로기 이후
오바다 요엘 예레미야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애가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라 말라기

주의해야 할 점은 예레미야(예레미야 애가도 썼음)는 바빌론에 의한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3) 누가복음 24장 44절과 27절을 비교해 볼 것

경고하였고 포로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포로기 이전 대언자들에는 누가 있을까요?

- 오바다 - 예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과 그들의 미래를 다룸
- 요엘 - “주의 날”을 강조함
- 요나 - 하나님의 메시지를 악한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전달함
- 아모스 - 북 왕국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지를 전함
- 호세아 -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을 지적함
- 이사야 - 남 왕국 유다를 위한 메시지를 전함
- 미가 -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으로 유다를 향해 메시지를 전함
- 나훔 -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을 전함
- 스바냐 - 유다에 메시지를 전함
- 학개 - 임박한 바빌론 침략을 경고함

포로기간 중 대언자들에는 누가 있을까요?

- 다니엘과 에스겔 - 포로기 동안에 사역을 수행했음

포로기 이후 대언자들에는 누가 있을까요?

학개와 스가라는 성전 건축을 위해 돌아온 소수의 남은 자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⁴⁾

말라기는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기 전에 마지막 대언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심각한 침체기를 상태였습니다.

이것으로 구약에 대한 공부와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빛 안에서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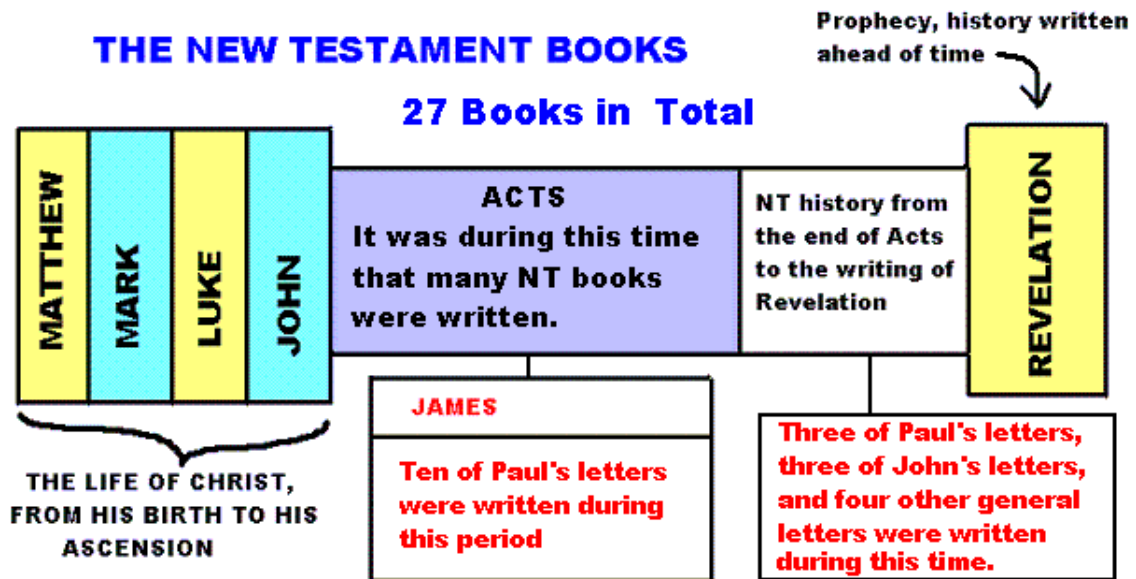
4) 이 부분은 에스라1장에서 6장을 참조해 보세요.

주일학교 7학년 B과

신약성경의 책들⁵⁾

이름 _____

이 과에서 우리는 신약성경의 책들이 어떻게 서로 잘 어울리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에는 역사적 성격을 가진 6개의 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역사적 흐름을 보여 줍니다. 그것들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요한 계시록입니다.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 안의 내용은 주로 주님의 삶의 마지막 3년 반 동안의 일이며 특히 마지막 주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책의 틀 안에서 대부분의 신약성경 책이 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복음이 퍼지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신약의 책들이 언제 사도행전과 관련하여 씌어졌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고 그것이 미래의 역사적인 일, 특히 미래의 환난기에 일어날 사건 (계4-19장), 그리스도의 재림(19장), 그리스도의 천년왕국(20장)과 새 하늘들과 새 땅(21-22장)등에 대해 미리 말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미리 씌어진 역사입니다. 역사가는 과거에 일어났던 것에 대해 적습니다. 대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 말합니다.



총 27권으로 된 신약의 책들

마태/마가/누가/요한 —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생애

사도행전 — 이시기에 모든 신약의 책들이 씌어짐.

야고보서 — 바울의 10개의 편지들이 이 시기에 씌어짐.

사도행전의 끝부분에서부터 계시록이 씌어질 때까지의 신약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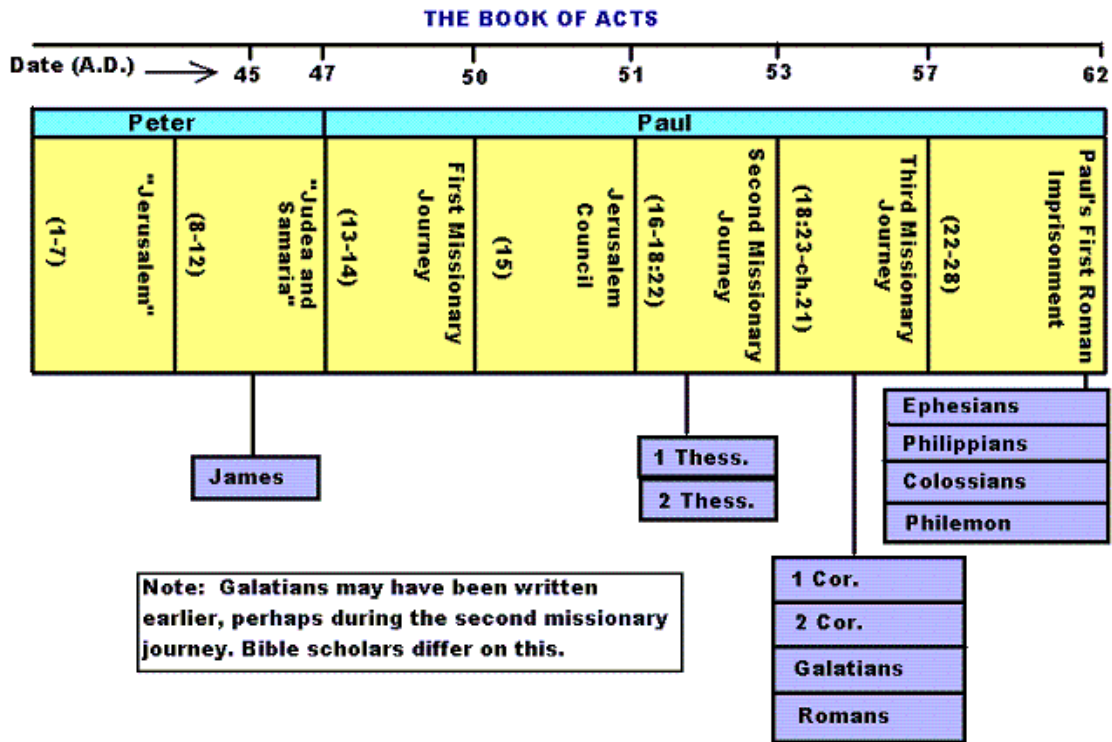
바울의 3개의 편지들, 요한의 3개의 편지들과 4개의 다른 일반 편지들이 이 시기에 씌어짐.

요한 계시록 — 대언, 미리 씌어진 역사

사도행전의 시기에 씌어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유일한 서신서들은 디모데전서,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바울의 로마에서의 첫째 투옥 후에(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음) 씌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시기에 씌어진 신약 책들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부분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5) 이번 과는 2주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해야 함(사도행전의 시간 표, 스터디 바이블 참조)

(1-12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주인공입니다(13-28장).



사도행전



(노트: 갈라디아서는 좀 더 일찍 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2차 선교여행 동안에.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요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_____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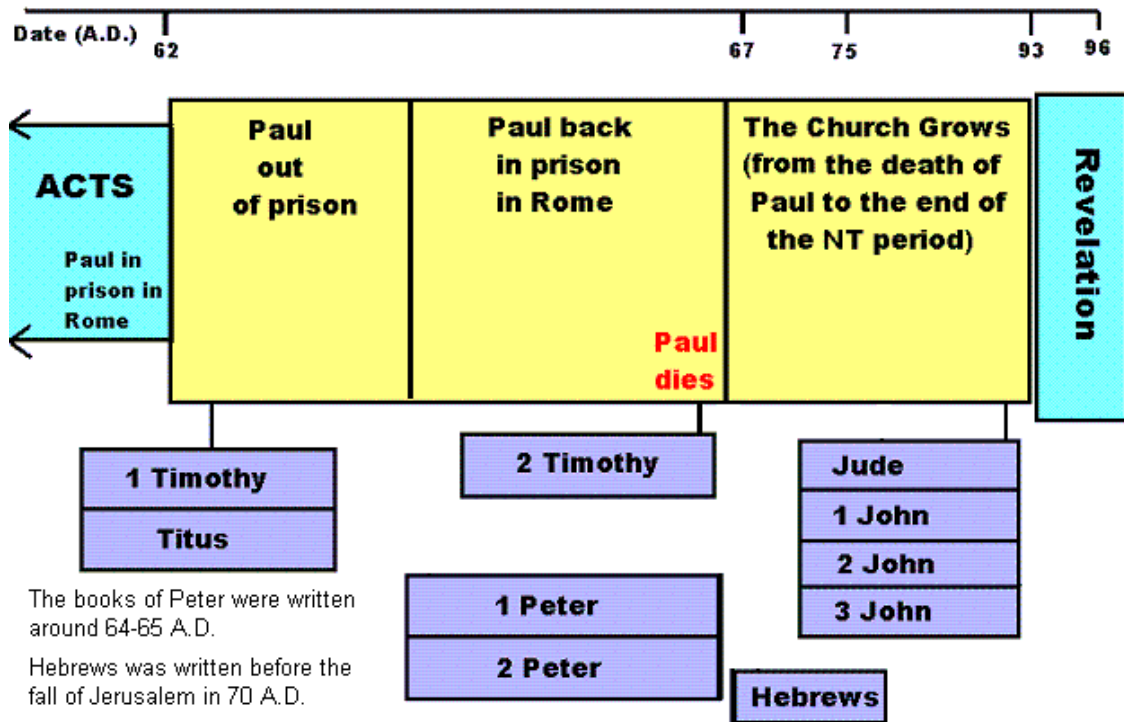
예루살렘에서 — 시작점 (눅24:49보시오) (행2-7장)

온 유대에서 — 유대인의 고향 (행8:1-4)

사마리아에서 — 사마리아인의 고향 (행8:5-25)

땅의 맨 끝 지역까지 — 이방인들의 고향 (행8:26-28장) - 이를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음의 책들은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완료된 이후에 씌어졌습니다.:



연대(A.D.)	62	67	75	93	96
사도행전 로마 감옥에서의 바울	바울이 감옥에서 나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 바울의 죽음	교회의 성장 (바울의 죽음에서부터 신약시대의 마감까지)		계시록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유다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베드로의 책들은 대략 A.D. 64-65년에 씌어짐.					
히브리서는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씌어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이제 신약성경의 각 책을 간단하게 들여다봅시다. 사복음서(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는 모두 주님의 공적 사역 기간인 3년 반의 사건들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요점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열정과 죽음에 대한 승리까지 인도하는 사건들입니다. 각 복음서는 다음의 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강조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p>그리스도를 왕으로 나타냄 (대언되었던 왕)</p> <p>핵심 절: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들의 왕"</p> <p>자주색(출26:36)--왕권의 색(왕의 신분) 사자(겔1:10; 계1:7)-짐승들의 왕 특히 유대인들에게 씌어짐</p>	<p>그리스도를 종으로 나타냄 (순종하는 종)</p> <p>핵심 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p> <p>주홍색(출26:36)--피의 색: 종은 반드시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 소(겔1:10)--희생물이 될 짐승 특히 로마인들을 위해 씌어짐</p>
누가복음	요한복음
<p>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나타냄 (완전한 사람)</p> <p>핵심 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p> <p>하얀 색-순결함의 색: 그분은 죄 없으시고, 순결하고,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사람 (겔1:10)--그분의 완전한 인간성 특히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씌어짐.</p>	<p>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타냄 (하나님의 아들)</p> <p>핵심 절: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의 아들"</p> <p>청색(출26:36)-하늘의 색: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던 그분이십니다. 독수리 (겔1:10)--하늘들로부터 온 새 온 세상을 위해 씌어짐</p>
<p>사복음서는 다 한 분, 찬양 받으실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킨다!</p>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행1:1)의 연장이며 오순절 날 (행2장) 시작되었던 교회 안에서와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는 1장-12장에서 핵심 인물이며 바울은 13-28장에서 핵심 인물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예언의 사건들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핵심 절과 주제는 요한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2-3장은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4-22장은 모두 미래의 일이며, 7년 환난기는 4-19장에서, 재림은 19장에서, 왕국은 20장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21-2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책 중 가장 일찍 씌어진 책입니다.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주님과 아버지가 다른 형제이며, 유다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을 보여준다는 아주 실용적인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반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성도들을 칭의나 성화를 위해 율법 아래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의롭게 하지 못하고; 성화도 이루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보여줄 수는 있지만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바로 사는 열쇠는 시내 산에서 찾을 수 없지만 갈보리 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롬6장; 갈2:20).

데살로니가전후서는 바울 사도의 초기 서신서들입니다. 이 책들은 새 신자들에게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핍박 가운데서도 강진함을 주기 위해 씌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각 장마다 그분의 백성을 위해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휴거, 요14:3과 비교).

고린도전서의 각 장은 사도 바울이 바로 잡고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리적으로나 (그들이 믿는 것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행동에서)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잡음은 가능하되 오직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딤후3:16).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 편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에 대한 것과 그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께로 향한 마음과 헌신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교리적인 결작입니다. 로마서의 각 장별로 된 강해를 보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숨겨졌던 중요한 비밀, 그렇지만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비밀) 에베소서 역시 그분의 몸이신 하나님의 중요한 교회에 속한 진리가 풍부합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핵심 절은 빌립보서 4장 4절이며 핵심 단어는 '기쁨'입니다.

골로새서는 으뜸이 되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1:18). 그분은 성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구원자).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주님께 인도했던 종에게 우리를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지역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합니다(3:15).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와 함께 바울의 첫째 투옥 이후에 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목회 서신들 세 개중 하나입니다(디모데전서와 후서와 함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의 둘째 투옥 시기 동안에 썼으며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을 지경에 처한 것을 서술했습니다. 이것들은 바울의 마지막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다루고 있으며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죽음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주춤거리지 않고 믿음에 거함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격려를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한 격려를 줌으로서 (11장의 믿음 장) 그리고 그들에게 강한 경고들을 줌으로서 (6장과 10장) 그분의 성도들이 바른 궤도에 있도록 보호하십니다.

유다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몸(God's body of truth)인 교회가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3절). 이 책은 배교자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냅니다. "배교자의 행진"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참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특히 마지막 몇 구절들에서).

요한1서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주기위해 씌어졌습니다(1:4; 5:13).

요한2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지지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부정적 대우: "받아들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요한3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지해야 할 사람들 (긍정적 환대: "받아들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신약의 27권에 대한 간단한 요약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책들이 특히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서와 관련해서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기원합니다.

주일학교 7학년 4과

성경 속 측정단위들: 길이, 거리, 부피, 무게, 가치, 시간

이름 _____

성경 속 길이의 단위

우리 모두는 1센티미터가 얼마나 되는지, 1미터가 얼마나 되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혹시 1큐빗(cubit)¹⁾이 얼마인지 한 뼘(a span)²⁾이 얼마인지 손의 폭(a handbreadth)³⁾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오늘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터 자, 보통 자, 혹은 줄자로 뭔가를 측정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길이를 측정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몸이 측정단위들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자! 다음의 도표를 보세요.

Handbreadth (손의 폭)	<p>이것은 4개의 손가락을 밀접하게 짝 붙였을 때 둘째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의 양쪽 끝을 가로질러서 낸 너비를 가리킵니다. 대략 8-10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출애굽기 37장 12절을 보세요. 표준 종이 A4 한 장의 길이를 생각해 보세요(210*297mm). 이 종이는 손의 폭으로 몇 개나 될까요? _____ 나의 삶의 길이(나의 모든 날들을 더했을 때)는 매우 기나요? (시편39:5) _____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p>
Span (한 뼘)	<p>이것은 엄지손가락 끝에서 새끼손가락 끝부분까지의 너비를 뜻하는데, 이 단위를 사용할 때는 손을 짝 펼쳐야 하고 그때 어른 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2.5센티미터 정도의 길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16절을 보면 제사장의 흉패에서 한 뼘(span)의 단위를 사용합니다.</p>
Cubit (큐빗)	<p>이것은 팔꿈치 끝부분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부분까지의 팔의 길이 단위인데, 성인기준으로 약45센티미터가 됩니다. 당신의 친구 중에 한 명을 재보고 그 친구가 몇 큐빗이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한 뼘(span)들을 1큐빗이 대신 하나요? _____ 한 뼘이 1/2 큐빗과 길이가 같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거인 골리앗은 얼마나 크나요?(삼상17:4) _____ 신명기 3장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의 침대의 크기는 얼마나 컸는지 알아보시다. _____</p>
Measuring Reed (측량 갈대)	<p>갈대는 실제 식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종려나무나 사탕수수 같은 것인데 그 모양이나 길이가 측정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과 5절을 보세요. 5절에서 이 갈대의 길이는 1 큐빗의 길이와 1 손의 폭으로 6큐빗 길이입니다. 따라서 측량갈대 한 개는 6큐빗과 6 손의 폭 즉 3.3미터였습니다.</p>

1) cubit(큐빗)-완척(腕尺) 고대의 척도로, 팔꿈치에서 가운데손가락 끝까지의 43-45cm

2) span(한 뼘)-9inches, 23cm

3) handbreath(손의 폭)-약 4inches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것인가?

한 농구팀 코치가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직 1.8미터 이상인 사람만 우리 팀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당신은 기준에 도달했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혹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오직 평균 90점 혹은 그 이상인 사람만이 우리 반에서 A학점을 받을 수 있어!” 아마도 모든 학생들이 그 높은 기준과 요구사항을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오는 것에 대해 대단히 높은 필요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같이 의로운 사람만이 나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노라!”하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을 만족 시킬 수 있나요?(롬3:10) _____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기에는 부족합니까?(롬3:23) _____

어떻게 우리들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롭고 정당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예수 그리스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_____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죄로 가득 차고 의롭지 못하여 결코 하나님의 측정기준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의롭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로 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았나요?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요?(고린도후서 5장17절을 보세요)

거리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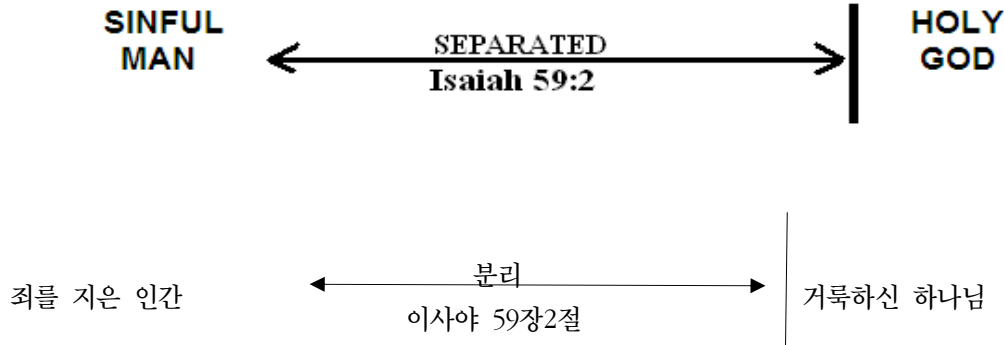
우리는 보통 거리를 측정할 때 킬로미터(km)나 미터(m)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Furlong⁴⁾ (펠롱)	(그리스어로는 스타디온 이라 표현) 이것은 약 180미터의 거리였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멀었을까요? _____ 제자들은 대략 얼마나 노를 저어 갔을까요?(요6:19) _____
Mile⁵⁾ (마일)	(그리스어로는 밀리온)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마일(mile)을 사용해서 거리를 측정하였는데 이때 쓰인 마일(mile)은 약 1.6킬로미터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참조).
Sabbath Day's Journey (안식일의 이동거리)	이것은 출애굽기16장 29절을 기초로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초과해서 걷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법률가들(legislators)은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0.9킬로미터가 되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올리브산 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멀까요? (행1:12) _____
A Day's Journey (하루의 이동거리)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보통 30-45킬로미터이지만 대규모 가족 단위로 걸을 경우 예를 들어 여자와 아이들이 동참할 경우에는 오직 16킬로미터로 한정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18절을 참조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요셉과 마리아가 그분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먼 거리를 걸었나요?(눅2:44) _____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나요?

당신은 당신의 조부모님과 혹은 다른 친척들과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서 지낼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들은 한국 밖에서 살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리가 상당하겠지요! 당신은 그들에게 어떻게 갈수 있나요? 아마도 당신은 차, 버스, 기차, 비행기 등을 타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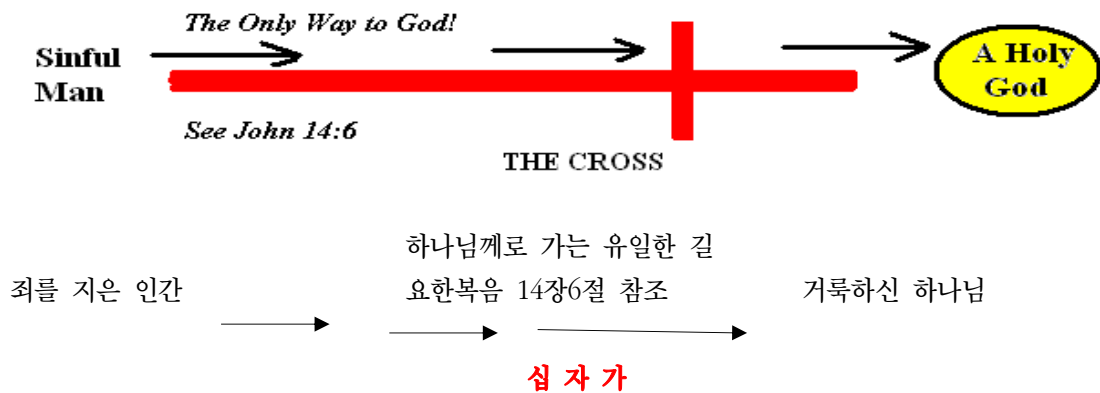
그와 비슷하게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터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그분께로 가는 비행기나 로켓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___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행17:27)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수 있을까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전파는 항상 우리 방안에 존재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없다면 당신은 그런 전파를 잡아서 나와 관계가 있게 연결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제대로 소리가 나고 텔레비전에서 정상적으로 화면이 잘 보이게 하려면 그것들이 반드시 플러그에 꽂아져서 올바르게 연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전파처럼 항상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계시지요. 다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방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___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___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14:6)



4) furlong(펄롱)-거리의 단위; 220야드, 또는 1/8마일에 해당; 약201m, 약자로는 fur.

5) mile(마일)-(영어권의 육상 거리 상용 단위) 약1,609m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이 사람이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용량(체적)의 측정

건량 단위(Dry measures)

미국에서는 건량 단위로 부셸(bushel)⁶⁾, 팩(peck)⁷⁾, 쿼트(quart)⁸⁾, 파인트(pint)⁹⁾를 사용합니다. 성경 시대에 사용되었던 측정 단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Handful (한 움큼)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손으로 하는 용량 단위였습니다.(마치 누군가가 당신에게 팝콘 큰 상자를 보이며 한 움큼 즐까? 할 때 쓰임, 레위기 2장 2절 참조).
Omer (오멜)	일 오멜은 2.9리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얼마나 많은 양의 만나를 제공해 주셨나요?(출16:16) _____
Ephah (에바)	이것은 10 오멜(출16:36 참조) 즉 29리터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가라고 말을 들었나요? (삼상17:17 참조) _____
Homer (호멜)	원래 이 용어는 당나귀의 짐(당나귀가 운반할 수 있는 양)을 표시한 것으로 10 에바 즉 290리터의 양을 말했습니다. 메추라기를 가장 적게 모은 이스라엘 사람이 모은 양이 몇 리터가 되나요?(민11:32) _____
Bushel (부셸)	그리스어로는 모디어스(Modius)-대략 1팩 혹은 미국 측정기준 1/4부셸. 부셸이란 말이 측정 단위로 쓰이지 않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마5:15) _____

액량 단위 (미국기준: 갤런(gallon)=4쿼트/ 1쿼트=2파인트)

미국에서는 보통 액체를 측정할 때 갤런(gallon)¹⁰⁾, 쿼트(quart), 파인트(pint) 같은 단위를 씁니다. 다음은 성경시대에 사용한 액체 측정 단위들입니다.

Log (로그)	이것은 1/2 파인트 보다 적은 양입니다. 레위기14장 10절에 보면 “기름 일 로그”가 나오는데 이것은 0.3-0.4리터입니다.
Hin (힌)	이것은 약 3.75리터입니다. 에스겔 대언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마셨나요?(겔 4:11)_____
Bath (바스)	이것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한 가장 큰 액체측정 단위였습니다. 그 용적은 거의 22리터나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만든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을 채웠나요?

6) bushel(부셸)-곡식 따위의 계량 단위, 약자로는 bu(s).

7) peck(팩)- 곡식의 계량 단위, 8 quarts, 1/4 bushel, 약9 l, 약자로는 pk. *액체에는 쓰지 않음

8) quart(쿼트)-건량 단위, 1/8 peck, 2 pints

9) pint(파인트)- 건량단위, 0.5 quart, <미국>0.47 l

10) gallon(갤런)-액량단위로 4쿼트, 미국 표준 갤런은 3.7853 l, 약자로는 gal, 혹은 gall.

	(왕상7:26)_____
Firkin¹¹⁾ (피킨)	(그리스어로는 메트레테스(Metretes) 이것은 약 33리터임. 물 항아리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담았나요?(요2:6)_____

건량과 액량 단위

지금까지 배운 성경시대에 사용한 건량과 액량 단위의 관점에서 이사야서 5장 10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참고로 1에이커는 1224평으로 액 4000제곱미터임).

이렇게 배운 것이 도움이 좀 되었나요?

당신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속에 담고 있나요?

당신은 가치 있는 무언가를 몸 안에 담고 있나요? 당신의 몸은 4.7리터의 혈액과 200개의 뼈, 600개 이상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밖에 다른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나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성경은“_____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일4:12)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채우십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위대한 성전도 심지어 우주도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대하6:18).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 스스로 모든 성도들안에 오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얼마만큼을 모시고 있나요?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극히 작은 부분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부분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_____”으로 채워집니다(엡3:19).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부분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모든 성도들안에 엄청난 보물 - 살아계신 하나님 - 이 있습니다(고후4:7).

만약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일주일간 머무른다면,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동생이나 누나와 싸우는 모습을 대통령에게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신은 영광스러운 손님인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살아계시는 영광스러운 손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일은 우리의 삶을 지금과는 완전 180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고전6:19-20).

무게 단위

히브리인들은 귀중한 금속이나 다른 용품들에 무게를 재는데 측정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무게를 잴 때, 보통 킬로그램(kg), 그램(g) 혹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톤(ton)을 사용합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세겔(shekel)¹²⁾이나 달란트(talent)를 사용했습니다.

Shekel (세겔)	1 세겔의 무게는 유동적이지만 보통 13.5그램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은 1 세겔은 13.5그램 무게가 나가는 은 조각입니다. 역대기하 1장 17절에 따르면, 이집트 전차는
------------------------	---

11) frikin(피킨)-용량단위로 0.25barrel,(버터,라드 따위를 넣는)작은 나무통

12) shekel(세겔)-이스라엘 화폐단위, 고대 바빌로니아 등에서의 무게의 단위(약 1/2 온스)-1 ounce는 28.3495g

	얼마에 팔렸나요? _____
Talent (달란트)	이것은 히브리민족들이 쓴 가장 큰 무게 단위였습니다. 1 달란트는 약 3000세겔 즉 4-킬로그램(대략 90 pound ¹³⁾)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 23절을 보면서, 1달란트가 사람이 운반 할 수 있는 최대 무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을 읽어보세요. 만약 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무게가 1 달란트라면 솔로몬 왕의 금을 운반하는 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_____ 요한계시록 16장21에서 1달란트는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_____ 당신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 얼음 폭탄(1달란트 무게의 우박)중에 하나라도 맞기를 원하나요? _____

하나님의 명령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무겁고 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한 것들을 한다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너무 많아! 그것은 또한 너무 지키기 힘들어! 내가 감당하기에 역 부족이야!”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요일5:3)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가벼우니라.”(마 11:3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항상 우리가 _____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 할 것을 명령하셨으니...”(신6:24)

진짜로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내 마음이 무거운 죄 짐으로 눌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시고 내안에 평안을 주셨네! 이제 나는 행복하고 여기에 그 이유가 있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제거해 주셨네!”

가치 단위(화폐, 돈)

우리는 천원, 오천 원, 만원과 같은 화폐의 가치를 알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동전의 가치는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돈의 가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arthing (파딩)	그리스어로는 고드란트. 이것은 로마시대에 사용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 1/64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2 렘돈(mites)의 가치와 동등했습니다(막12:42). 일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에 받는 평균 수당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하루에 128,000원을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고드란트의 가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_____
Mite (렘돈)	그리스어로는 렘돈. 이것은 가장 작은 단위로 사용된 유대인들의 동전이었고 그것의 가치는 1/2 고드란트였습니다(막12:42). 가난한 과부가 얼마나 되는 렘돈을 가지고 있었나요? _____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의 헌금을 기뻐하셨나요? _____ 이유가 무엇일까요?
Farthing	그리스어로는 아사리온. 이것은 또 다른 작은 가치를 지닌 화폐를 설명하는

13) pound(파운드)-무게의 단위/일반적인 avoirdupois pound는 16 ounces, 약 453g/ 금,은,약 따위에 쓰이는 troy pound는 12 ounces 약375g.

	<p>그리스말입니다.</p> <p>우리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모두 세시고 “이상한 참새”라고 불리는 작은 날짐승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참새 2마리가 1 아사리온에 팔리고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원래 계산대로라면 참새 2마리에 1 아사리온이니까 사는 사람이 2아사리온을 냈다면 4마리를 줘야 하지만 5마리를 줍니다. 이는 한 마리는 그냥 덤으로 끼워 주는 것이 되지요. 그렇다면 참새 한 마리라는 것이 거저 줄 정도로 가치가 아주 낮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참새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건 살 때 계산할 가치도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십니다. 단 한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p>
<p>Penny (페니)</p>	<p>그리스어로는 데나리온. 이것은 로마의 은화로서 보통 사람의 하루 노동 품삯이었습니다(마20:2,4,7 참조). 요한복음12장 5절에 보면 귀한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는 보통 사람이 300일 정도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거의 평균적으로 1년 치 봉급에 해당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날 인플레이션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말씀하시는 환난기에는 어떻겠습니까?</p>

당신은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

아마도 몇몇 사람들은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 중에는 마치 당신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당신이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10장 29-31절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 구절에 따르면, 당신은 매우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여자 아이가 예쁜 스웨터를 짜거나 남자아이가 멋있는 나무배를 만들면 아무도 그것이 아무런 가치 없는 물건 인 것처럼 함부로 버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년과 소녀가 직접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만약 당신이 뭔가를 산다면, 그것은 또한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자전거를 산다면, 당신은 아주 조심조심 자전거를 타면서 혹시라도 웅덩이가 보이면 피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 자전거는 당신이 직접 돈을 내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구매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나요?(요1:3) _____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주고 당신을 사셨나요?(고전6:20)
_____ 당신은 하나님께 가치 있습니까? _____

나는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의 아들처럼 의로워 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나는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십니다.

나는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말씀과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시간 단위

Year (년)	<p>년은 계절의 변화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분명히 오늘날 같은 B.C.나 A.D.같은 개념이 없었습니다.</p> <p>성경 시대에, 연도는 최소 2가지 방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p> <p>연도는 종종 왕의 통치 시작부터 계산되곤 했습니다(눅3:1; 왕상14:25; 15:1).</p> <p>연도는 종종 유명한 역사적 사건부터 계산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민 33:38, 왕상6:1), 바빌론 포로기(에스겔33:21;40:1).</p> <p>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연도를 계산 합니다. B.C.=before Christ; A.D.=Anno Domini(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p>
Month (월)	<p>월은 달의 변화에 기초합니다. 월의 이름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과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달은 니산 월(Nisan)이라 했고 유월절(Passover)은 항상 이 달에 기념했습니다(레23:5 참조).</p>
Week	<p>주는 2개의 안식일 사이의 간격으로 정의하고 그것은 원래 창조의 한 주(week)에 기초합니다(창1:1-2:3).</p> <p>안식일은 주의 일곱째 날이었습니다(토요일)-(창2:1~3 참조).</p> <p>주의 첫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눅24:1).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던 날은 언제였습니까?(행20:7; 고전16:2) _____</p>
Day (날)	<p>날은 낮과 밤의 순환을 기초로 한 24시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몰에서 일몰까지를 하루로 계산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하루의 시작을 일몰 때로 정했습니다. (“_____ 부터 _____ 까지” 레23:32)</p> <p>이러한 관습은 명백히 창조에서 기원합니다. “그 _____ 과 아침이 _____ 이더라.”(창1:5)</p> <p>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정부터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p>
Hour¹⁴⁾ (시간)	<p>아마도 시간은 낮 시간을 12등분한 바빌론 방법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일출 때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다면(새벽6시를 0시라고 계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은 언제입니까?(막15:25) _____</p> <p>그 시간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덮혔었나요?(마27:45~46) _____</p> <p>각기 다른 일꾼들을 부른 시각은 언제였나요?(마20:1,3,5,6)</p> <p>_____</p>

이번 과에서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측정 단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도 많습니다. 성경사전(A good Bible handbook)이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노트들이 당신에게 무게와 측정단위들에 대한 좀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14) 로마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9장 4절에 설명된 시각은 새벽 6시가 맞습니다(오전 9시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7학년 1과
성경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¹⁵⁾

이름 _____

오늘날 주님께서는 성경의 불변하는 진리들을 공부하고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많은 훌륭한 책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적으니 수치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_____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_____ 요구할 것이요.”(눅12:48).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좋은 지도를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길을 잃어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요리책을 받았는데 참고하지 않으면 케이크가 실패작으로 나와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성경에 대해 계속 무지한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의 덕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연구를 도와줄 몇 가지 책들을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1. 성경 핸드북(Bible handbook)

좋은 성경 핸드북이란 이 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제들을 포함하며 성경 전체를 다루는 단순하고 간결한 참고서적입니다. 성경 핸드북은 또한 성경의 66권의 일반적 개론을 주면서 각 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당신이 고린도 전서 7장의 내용과 가르침에 대해 알고 싶다면 성경 안내서는 이런 정보를 한두 개의 간결한 문단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언거의 성경 핸드북>(Unger's Bible Handbook)을 추천합니다.

2. 국어사전(영어 사전)

이것은 성경 공부하는 학생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도구들 중 하나입니다. 확실하게 좋은 것을 준비하십시오. 성경을 이해할 때 생기는 어려움의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영어를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사전은 누가복음 13장에서 다음의 주요 단어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비유”(6절), “병약함”(11절), “분”(14절), “위선자”(15절), “대적들”(17절), “불법”(27절), “황폐한”(35절). 당신은 이 모든 단어들의 의미를 압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사전이 필요합니다!

3. 단어 색인 책(Concordance)

성경의 단어 색인은 문맥 안에 (단어들이 나와 있는 문장이나 구) 열거 되어있는 단어들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알파벳 순서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단어 색인이 성경 공부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절을 찾는 것을 도와줍니다. 한 구절이 성경 안에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필요한 가장 좋은 책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단어 색인을 사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구절이 성경의 어디에 (책, 장과 절)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힌트: 특별한(평범하지 않은) 단어를 검색합니다. (“뿌리”나 “돈”과 같이) “그”나 “모든” 혹은 “있다”와 같은 평범한 단어들을 검색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 목록이 너무 커서 하루 종일 찾지 않으면 그 구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은 용량의 단어 색인 책은 너무 자주 보게 되는 평범한 단어들은 포함해 놓지도 않습니다.

2) 단어 색인은 단어의 뜻을 성경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믿음”이란 단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상상해 봅시다. 단어 색인을 가지고 당신이 단순히 이 단어를 검색하면 즉시 이 단어가 성경의 어디에

15) 이번 과는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하지 않아도 됨

나오시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런 구절들로 가서 믿음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많은 성경책들은 뒷면에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단어 색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단어 색인은 매우 큰 책이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단어 (평범한 단어들까지도)의 목록과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는 모든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천: <스트롱의 콩코던스>(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단어 공부를 원어로 하고 싶은 학생들은 <영국인의 그리스어 단어 색인>(Englishman's Greek Concordance)를 보기 바랍니다.

4. 성경 번역

우리 교회에서는 강대상에서나 모든 교실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다른 역본은 교회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는 모든 역본이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역본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5. 스터디 혹은 참조 성경

어떤 성경들은 특별히 심도 있게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스터디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좋은 스터디 성경은 다음과 같은 유익한 기능들을 포함합니다. 1. 상호참조 기능(예를 들면 당신이 에베소서 6장 1-2절을 공부하고 있다면 상호참조 기능은 당신을 골로새서 3장 20절과 출애굽기 20장 12절로 인도할 것입니다); 2.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소개(저자, 시기, 주제, 목적 등을 줌) 3. 성경 전체를 통하여 단어를 정의하고 어려운 구절들을 설명하며 필요한 곳에 뒷배경이 되는 내용을 제공하며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주는 설명이 있습니다. 4) 부분적인 단어 색인 5) 성경 지도들

A. 한국인을 위한 추천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스터디 바이블, 이 안에는 20만 개의 관주와 400여 쪽의 성경 사전 그리고 100쪽의 컬러 지도와 선도 등이 들어 있고 66권 책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B. 미국인들을 위한 추천 성경: 스코필드 참조 성경 (The Scofield Reference Bible). 이 스터디 바이블은 위의 모든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의 교사나 목사가 설명할 수 있도록 고유한 사슬식의 참조 체계(unique chain reference system)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스터디 바이블들이 다 추천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런 주석들을 작성한 사람의 견해들을 반영하고 있고 이런 견해들은 성경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스터디 바이블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주석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로, 스코필드 스터디 바이블 (우리가 추천하는)은 잘못된 '갭이론'을 소개했습니다. [갭이론 (The Gap Theory)에 대한 우리의 과제를 보기 바랍니다. 만일 스코필드가 오늘 살아있었다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조사의 결과로 나타났던 새로운 교리에 비추어서 이 견해를 주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본문은 영감으로 주어졌고 오류가 없으나 쪽의 밑단과 가장자리에 있는 주석들은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의해 씌어진 어떤 것 즉 영감이 없는 것을 읽을 때에는 그들이 아무리 진지하고 경건하다 하더라도 그런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 매일 성경기록들을 탐구해야 합니다(행17:11 비교).

6. 성경 사전

좋은 성경 사전은 진지한 성경 학도를 위해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사전을 당연히 써야할 만큼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전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르게 사용한다면, 성경 사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에게 유용한 가장 가치 있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좋은 성경 사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 대한 예들이 있습니다.

1	장소들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	-----	--------------------

2	도시들	소돔이란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	사람들	여호아하스는 누구였습니까?
4	짐승들	산토끼는 무엇입니까?
5	식물들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6	광석	자수정은 어떤 보석입니까?
7	직업	세탁공은 어떤 종류의 일을 합니까?
8	교리들	칭의의 옳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9	빌딩	성막에서 발견되는 가구들의 여러 가지 물품들은 무엇이었습니까?
10	악기	다윗이 연주했던 하프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현대의 악기와 같은 것이었습니까?

좋은 성경 사전에서 이 표에서 밑줄 친 단어들을 검색하시면 이 모든 질문의 답이 나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을 읽고 이 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사전에서 찾고자 하는 단어들이나 이름들을 나열해 보시오.

추천: 좋은 성경 사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의 성경사전>(Unger's Bible Dictionary)을 추천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에서 나온 <에스라 성경 사전>을 추천합니다. 다른 것들도 좋거나 더 좋을 수 있지만, 기고자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연대기 표

연대기란 시간을 다루며 사건들을 그들의 적절한 날짜에 지정하는 일을 하는 연구입니다. 성경 연대기는 이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디모데후서는 언제 씌어졌습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남유다왕국이 바빌론에 의해 언제 멸망당했습니까?”, “에스겔은 그의 위대한 대언들을 언제 주었습니까?”, “모세 시대에 출애굽 동안 이집트의 파라오는 누구였으며 요셉이 섬겼던 파라오는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의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들은 좋은 스티디 바이블이나 바이블 핸드북 혹은 성경 사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연대기를 배우고자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성경 학생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연대기 표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 가지 도표들을 추천합니다.:

1	윌콕(John C. Whitcomb)이 지은 <구약의 족장들과 사사들의 도표>
2	윌콕(John C. Whitcomb)이 지은 <구약의 왕들과 대언자들의 도표>
3	보이어(James L. Boyer)가 지은 <신약의 연대기표>

도표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지만 여기 세 가지 목록들이 가장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뒤에는 연대기표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8. 성경 지도

5장에서 우리는 성경의 땅들(산들, 강들, 바다들, 사막들, 나라들, 도시들 등등)의 지리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스테디 바이블들이 모든 목적을 충족시키는 좋은 지도들을 뒷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경 지도는 매우 유용합니다. 추천: <베이커의 성경지도>(Baker's Bible Atlas).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뒤에도 좋은 지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9. 교리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적은 훌륭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책들은 다음의 교리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구원, 율법과 은혜, 교회, 사탄, 성경, 대언, 왕국, 복음주의, 창조 등등. 당신이 이런 교리들의 주제 중 어느 것을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목사님에게 어느 책이 가장 좋은 것인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런 교리를 공부할 가장 좋은 책은 성경 그 자체입니다.

추천: 웨이퍼(Lewis S. Chafer)가 지은 <주요 성경 주제들>(Major Bible Themes)과 맥킨토시(C. H. Mackintosh)가 지은 <맥킨토시 금고>(The Mackintosh Treasury). 이런 주요한 성경의 교리들을 자세히 공부하고자 하면 웨이퍼(Lewis S. Chafer)의 <조직 신학>(Systematic Theology)를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에 어떤 특정한 교리들을 위한 다른 추천물이 있습니다.

예언: 펜테코스트 (J. Dwight Pentecost)의 <다가올 것들>(Things to Come)

왕국: 맥클레인(Alva McClain)의 <왕국의 위대함>(The Greatness of the Kingdom)

세대주의: 라이리(Charles Ryrie)의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가 출간하는 <성경 바로 보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10. 주석들

주석이란 어떤 사람이 성경의 전체 책들이나 절이나 장들에 대해 써놓은 논평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빌립보서에 대해 이 서신서의 전체 4장안에 있는 모든 절들을 논하고 있는 주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 성경에 대해 한 권으로 된 주석서는 맥도날드(William MacDonald)가 지은 <성도의 성경 주석>(Believer's Bible Commentary)을 우리는 추천합니다. 전체 성경에 대한 고전 주석서는 매튜 헨리(Matthew Henry)의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한 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 보물입니다.

주의사항: 주석서는 당신이 제일 마지막에 공부해야 할 책이라야 합니다. 어떤 저자라도 인간이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주석서는 가끔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석을 먼저 읽는다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저자가 쓴 것을 금방 받아들일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떤 다른 책을 보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가십시오. 다음에 개인적인 성경공부를 위한 좋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1	성경을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오(3장 참조).
2	필요하다면 그 구절을 여러 번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오.
3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안의 상호참조 구절을 연구하십시오.

4	어려운 단어들의 뜻을 찾기 위해 영어(국어) 사전을 사용하십시오.
5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장소 등에 대해 배우기 위해 당신의 성경 사전을 사용하십시오.
6	주요 단어들과 그들이 성경 안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공부하기 위해 단어 색인을 사용하십시오.
7	성경 안에 있는 바이블 지도를 참고로 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구절의 지리학적인 면과 친숙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8	공부하고자 하는 구절에 관계되는 연대기 표를 참조하십시오.
9	메모들은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스터디 바이블에 나와 있는 메모 부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들은 매우 유용하지만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10	주님께서 다른 성도들이 써 놓은 것을 통해 당신을 가르치실 것과, 오류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씌어진 책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로부터 당신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바이블 핸드북과 주석서 (갖고 있다면)를 읽으십시오.

마지막 권고의 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딤후2:15).
------------	---

주일학교 7학년 11과
성경 공부할 때 읽기의 기쁨¹⁶⁾

이름 _____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위기에 빠졌을 때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 지식을 부차적인 것으로 아는 데에만 만족합니다. 한편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지만 특별한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 성경기록의 풍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 설명할 성경 공부의 방법은 의미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열어줄 것입니다. 함께 공부해 보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2장 15절을 보세요.

Step 1--관찰하기(OBSERVE)		
핵심 구절: 요5:39 '탐구하라'(SEARCH)		
핵심 질문: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목적(Purpose)	의미(Meaning)	방법(Method)
<p>쉽게 지나칠 수 있는 모든 단어와 세부 사항과 개념들을 찾아보기: 종종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옳은 것 구별하기를 잘 못할 때가 있다. 때로 우리는 너무 허술한 탐정이 된다. 이는 너무 서둘러서 읽기 때문이다. 어떤 성경 구절이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을 너무 쉽게 놓칠 수 있다.</p>	<p>모든 단어와 구들을 보고, 조사하고, 탐색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보고, 바라보고, 생각해 보기</p>	<p>읽고 또 읽으세요. 메모를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자기의 말로 다시 써보세요.</p>

Step 2--해석하기(INTERPRET)		
핵심 구절: 마24:15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LET HIM UNDERSTAND)"		
핵심 질문: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목적(Purpose)	의미(Meaning)	방법(Method)
<p>설명하기,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그리고 그의 독자들이 이해하길 바랐던 의미를 전달하세요.</p>	<p>설명하기, 명료하게 말하기, 의미를 말하기, 뜻을 전달하기</p>	<p>문화적, 언어적, 시간적 차이 (gap)를 연결하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종종 번역, 사전, 지도책 등 이 필요합니다.</p>

16) 로버트 F. 레이미(Robert F. Ramey)에게 사용 허가를 받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읽는 대로 그분께서 뜻하신 것이며 그분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뜻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라고 미리 추측한 생각이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사람들은 성경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자신들의 해석법을 우겨넣어서 실제로 성경을 남용하거나 오용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게 하기를 원하거나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이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관적인 태도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일에 유해하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미리 생각한 개념이나 우리의 주장들 모두를 내던져 버리고, “주님, 저를 주님의 길로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우고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다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생각을 고쳐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하는 쪽으로 생각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진리 안에서 걷도록 해주시길 기도합니다(요이4, 요삼3-4)

Step 3--적용하기(APPLY)		
핵심 구절: 약 1:22 “행하는 자가 되어라”(BE DOERS)		
핵심 질문: 성경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요?		
목적(Purpose) 영적인 교훈을 배우고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의미(Meaning) 활용하고, 도입하고, 실행하고, 복종하고, 믿고, 실천하기 위함	방법(Method) 이 질문들에 답하기: 믿어야 할 약속이 있는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피해야 할 죄인가? 행해야 할 의무인가? 메아리처럼 되돌아 올 기도인가?

성경 교리를 배울 때 교리 학습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 그것처럼 의미 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삶과 분리된 진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참 진리가 아니며 사실 별 의미 없는 어떤 것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 우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담은 서류 봉치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들에 기초한 훈계의 책입니다. 성경책의 많은 부분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설득하며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설명하신 대로 그분의 의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신학적 진리는 사람이 그 진리에 복종하기 전까지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교리들의 이면에 숨어 있는 목적은 도덕적 행동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적용이 없는 성경 해설은 어떤 저항도, 설득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 저항이나 설득은 오직 성경 해설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진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정통 기독교 진리를 듣고 나서 자신들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도움만 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약시대 기독교에 전달된 많은 것들은 종교적 연회나 노래로 달콤하게 된 객관적인 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A.W. TOZER

Step 4--비교하기(COMPARE)		
핵심 구절: 고전2:13 비교하기		
핵심 질문: 성경은 다른 부분에서 무어라고 말하는가?		
<p>목적(Purpose)</p> <p>내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과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연관지어 보기 위함.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성경 전체와 연관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명확하게 볼 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전체 숲과의 관계를 봐야만 한다. 성경은 통일된 흐름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봐야만 한다.</p>	<p>의미(Meaning)</p> <p>성경기록의 상호 관계와 통합을 살펴보기 위함</p>	<p>방법(Method)</p> <p>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성경 속의 어떤 구절들, 문단, 장들이 내가 공부한 것들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빛을 비춰 주어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을 주는 동일한 내용들을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가? 당신은 성구사전색인과 함께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참조부분들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p>

수업 과제 중예: 마태복음19장16~26절을 공부하는 데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관찰하기(OBSERVE)- 학생들이 본문을 읽을 때 피상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아서 간과하고 지나갈지도 모르는 세부 사항들에 대해 주의 깊게 바라보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석하기(INTERPRET)- 학생들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만일 사람이 명령을 지키면 그는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이 명령들을 지켜야만 할까요? 죄인인 사람이 이것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본문에 나오는 '비늘 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생한 예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적용하기(APPLY)- 이 본문이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히 구원과 그 풍성함에 관련된 가르침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비교하기(COMPARE)-로마서 3장 20절에 따르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 부분이 앞에서 말한 로마서 부분과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을 요한복음 6장 47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두 구절과 비교해 보세요. 무엇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까?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던 부자 청년 치리자에 대한 주님의 태도가 어떠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이 더 자세하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막10:21 참조).

수업 외 숙제- 이 방법을 사용하여 마태복음 27장 39~54절과 요한복음 21장을 공부해 보세요.

주일학교 7학년 1과 성경 비평 (해로운 비평)

이름 _____

“비평”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눈이 가려져서 자신들의 더 큰 결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그분의 제자들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마 7:1-5).

이것은 다음과 같은 “악취가 나는” 이야기를 통해 잘 설명되어집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의자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의 손자들이 아주 오래된 — 악취 나는 림버거 치즈를 찾아내어 할아버지의 콧수염위에 얼마정도를 살짝 발라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났을 때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이방에서 썩은 내가 나네.”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부엌도 썩은 내가 나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이웃의 스미스씨를 만났고 예의 없이 “당신도 썩은 내가 나!”라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가 “온 세상이 썩었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할아버지의 코밑에 있었습니다. 그가 했어야 했던 것은 “그 자신의 코를 닦는 것”이었고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다시 기분 좋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오늘의 양식, 라디오 바이블 클래스 8/7/60에서).

결점이란 차의 전조등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이 항상 내 것보다 밝게 보이니 말입니다!

성경 비평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재판관으로 설정해 놓고 성경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과 판단을 합니다. 성경을 그들의 재판관으로 두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보여줌 — 히4:12-13), 그들은 (성경 안에서 소위 말하는 “실수들”과 “결점”을 지적함으로) 성경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이 불신자들은 모든 땅의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것이며(창18:25) 성경이 옳았고 그들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겠죠! 그들은 그들이 판단했던 바로 그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요12:48).

해로운 비평은 꼼꼼하게 유해한 불신자들이 성경기록의 평범한 진술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교만하게 생각할 때 하는 일입니다. 고등 (해로운) 비평에 대한 이 장의 끝에 있는 브라이언 (William Jennings Bryan)의 주석을 보기 바랍니다.

저등 비평은 고대 문서들의 바른 본문을 결정하기 위해 탐구하는 과학입니다. 이것은 또한 본문 비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 비평은 이런 질문들을 다룹니다: 이 문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이 문서가 씌어 진 날짜는 언제입니까? 이것은 한 사람에 의해 씌어 진 유일한 문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기에 함께 수습되어져서 한 사람 이상의 저자들이 합작한 것을 한 문서로 나타내 놓은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대학이나 종합대학에 가서 종교부의 성경 기초 과정을 선택하면, 당신은 교사로부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들으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사실,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모세는 성경의 처음 다섯 개의 책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1.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1. “이사야서는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사람에 의해 씌어졌습니다.”

1.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쓰지 않았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1. “아담과 이브는 단지 상징적 인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이 땅에서 실제로 살지 않았습니다.”

1. “요나와 고래의 기록은 좋은 이야기지만 물론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고래 안에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진술들은 불신자들이 저자권(하나님께서 책을 쓰기 위해 사용했던 사람 — 벤후1:2 참조), 날짜(책이 씌어진 시기 — 히1:1 참조), 그리고 역사적 현상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거기 포함된 사람들이 역사에서 실제로 살았던 실제 인물이었는지)들에 대해 결점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성경적 비평의 평범한 보기들입니다.

성경의 책들을 실제로 썼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책들이 언제 씌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들은 누가 진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 우리가 찾아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모든 답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 더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관해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분은 누구입니까? (맞는 답에 동그라미 하시오)

- | | |
|-----------|---------------|
| a. 교황 | e. 당신의 부모 |
| b. 목사님 | f.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 c. 학교 선생님 | g. 유대인 랍비 |
| d. 대학 교수 | h. 주 예수 그리스도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권위로서 완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압니다(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성경의 저자이시며(그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어떤 책에 대해 저자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이십니다! 그분은 성경 비평가들 중 어떤 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과거의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동시에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모든 사건을 개인적으로 목격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니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놀라운 평판을 갖고 계십니다(딤후1:2).

그분은 모세, 다니엘, 이사야, 베드로, 바울 그리고 요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사람들과 그들이 썼던 책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압니다.

이제는 성경 비평가들이 성경에 대해 무엇이든 했는지 검토해 보고 우리의 권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을 것입니까, 그리스도 혹은 비평가?

1. 모세는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의 책을 쓰지 않았다.

모세는 B.C. 1500년경에 살았으며 많은 성경 비평가들은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의 책들이 그렇게 일찍 씌어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책들이 여러 명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 씌어졌으며 최종적으로 모세의 시대가 끝난 1000년경에 편집되었다(하나로 묶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첫 다섯 권의 책들이 여러 개의 문서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여러 저자들에 의해 씌어졌으며 모세가 죽은 후 수백 년이 지난 후 편집되었다고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까? (요5:46-47; 눅24:27,44; 막12:26 참조; 출3:6과 비교)

2. 이사야서는 적어도 다른 두 사람에 의해 씌어졌다.

믿지 않는 “학자들”은 이사야서의 뒷부분 반쪽(40-66장)은 앞의 반쪽(1-39장)을 쓴 사람과 다르다고 가끔 말합니다. 그들은 이 알려지지 않은 저자를 “듀트로-이사야”(두 번째 이사야)로 부르며 그가 이사야 대언자보다 200년 후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고레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6세기 후반부에 대언자 이사야보다 200년 후에 살았던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사야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가 죽은 후에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왕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조지 워싱턴이 1980년이나 1984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평가들에게는 고레스에 대해 썼던 사람이 고레스의 날에 살았거나 그 후에 살았어야 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_____부터 _____을 밝히 알려실 수 있으며(사46:10) 이 사람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놀라지 않습니다!

에스라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고레스 칙령은 이사야의 대언들의 그림과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구체적 내용들 안에서 이런 법령을 확인해 주었던 실린더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맥도웰(Josh McDowell)의 <판결문을 요구하는 새로운 증거 The New Evidence That Demands a Verdict> 381쪽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사야 대언자에게 이런 정확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노트: 마가복음 7장 6절은 이사야서 29장 13절(처음 부분)의 인용이고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사야서 53장 4절(두 번째 부분)의 인용이며 성경은 이사야가 두 가지 모두의 인간 저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은 다시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죽은 뒤 수년 후에 살았던 어떤 알려지지 않은 저자에 의해 씌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니엘은 네 개의 위대한 세상 왕국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 놀라운 대언들을 합니다. 이런 위대한 왕국들 중 첫째는 바빌론이었고 둘째는 메대-페르시아이었고 다니엘은 이 처음 두 왕국들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그리스와 로마 (셋째와 넷째 왕국들)에 대해 알았을까요? 비평가들은 “그가 그리스와 로마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하였으니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책을 썼음에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미래의 왕국들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측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이사야의 저작권과 날짜들에 대해 문제를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권위에 따르면, 다니엘서는 누가 썼습니까? (마24:15) _____

4. 바울은 목회 서신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종종 목회 서신서들이라고 불립니다(목사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썼음). 많은 비평가들은 바울이 이 책들을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딤후1:1; 딤후1:1; 딤후1:1비교) _____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할까요, 혹은 비평가들을 믿어야 할까요?

5.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쓰지 않았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지 않았다면 성경은 진실하지 않습니다(벧후1:1 참조).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권위이신 분에 따르면, 성경은 진리입니까? _____ (요17:17)

6. 성경의 기적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불신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에 대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_____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창18:14) 불신자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은 몇 가지 기적들은 이런 것입니다.:

1. 사람의 창조 (아담과 이브). 불신자들은 사람이 수백만 년 전에 원숭이와 같은 창조물로부터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1. 노아 시대의 대 홍수

1.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들에 내려진 끔찍한 심판

1. 거대한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

이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우리의 권위)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말씀하셨습니까, 혹은 역사상 실제로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상상 속의 이야기들로 말씀하셨습니까? 다음 구절들을 참조하십시오.:

1. 마19:4-5

1. 마24:37-39; 눅17:27

1. 마11:23-24; 눅17:28,29,32

1. 마12:40-4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우화들 혹은 사실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적들을 자연적인 상황으로 설명함으로써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한 가지 예는 오천 명을 먹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소년이 그의 점심을(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 물고기) 예수님과 나누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이런 사심 없는 행동에 영감을 받아 그들 모두가 그들의 옷 안에 숨겨놓았던 도시락들을 꺼내 서로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12바구니의 음식들이 남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유일한 문제점은 성경이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있습니다(마14:15-21).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는 것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다른 구절들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젊은 농부의 아들이 한번 신학교에 공부하러 도시로 갔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신학교는 성경을 믿지도 않고 성경의 기적들을 거부하는 교수들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약성경 교수님이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홍해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홍해는 실제로 “갈대들의 바다”였고

물이 전혀 깊지 않았던 늪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 늪지를 가로질러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실 뒤에서 농부의 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수는 그의 교실에서 그런 소리가 일어난 적이 없었으므로 학생에게 왜 그렇게 감정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했는지 물었습니다. 농부 소년은 학생들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모든 이집트 군대들을 몇 인치 안 되는 물속으로 익사하게 만들 수 있다니요!”라고 말했습니다.

7. 천사나 악마나 진짜 마귀와 같은 것들은 없다. 미신에 빠진 사람들은 한 때 그런 것들을 믿었으나 지금 과학의 시대에는 배운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지 않는 성경 비평가들이 언젠가는 마귀와 천사들(마25:41)을 믿게 될까요? 마태복음 4:10; 10:8; 16:27; 24:31; 26:53; 13:39 등등 보시오.

당신의 믿음을 비평가들에게 두지 말고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그분은 절대 당신을 속이거나 미혹시키지 않습니다! 위대한 찬송인 <성경은 사실이다!>의 단어들을 기억합시다!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높은 산과 같이 서 있네;

그 진리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멸할 수 없다네! -할도 리레나스(Haldor Lillenas)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고등 비평가들

“공공연한 적들 외에도 성경은 솔직하지 않은 적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기독교의 친구들이라 자처하고 하나님과 성경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친구들은 그들을 고등 비평가라고 부르는데 이 호칭은 매우 형식적으로 그들을 설명했다 할지라도 참기 어려운 자기중심주의의 낚시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지식층인 양 행동하며 그들이 가난하거나 저속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에게는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고등 비평가는 공공연한 적보다 더 위험합니다. 무신론자는 당신에게 담대하게 접근하고 당신의 빛을 끄려고 하지만 당신이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왜 그러는지를 알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 비평가는 당신에게 친구처럼 그리고 공손한 모습으로 와서 묻습니다.: “빛이 당신의 눈에 너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시력을 해칠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빛을 그것이 작은 반점처럼 보이다가 안보이게 될 때까지 조금씩 치워버립니다.

‘고등 비평가’란 호칭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주제를 존경하는 정신으로 접근했으며 지적 의혹들을 만족시키겠다는 헛된 희망으로 진지하게 수고했는데, 진짜 문제는 반대자들의 머리가 아닌 마음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종교는 마음의 문제이며 마음의 충동들은 가끔 마음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믿음은 이성과 다르며 그것 위에 있습니다. 믿음은 환상의 영적 연장이다 -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고 마음이 잡을 수 없는 진리들을 택하는 도덕관념입니다. 그것은 고등 비평가에게는 아무리 정직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진리들을 전하기 위해 오직 지성적인 방법들에 의지하는 것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고전2:14).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고등 비평가는 영적 환상도, 혼에 대한 열정도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에도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주인의 포도원에서 애써 일하지 않지만 ‘모든 영광을 가진 솔로몬’은 그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지혜에 대한 권리를 결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동호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손상시킵니다. 그는 성경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병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가 그런 일을 마치고 나면 그 성경은 더 이상 책들 중의 책이 아니고 단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고등 비평가(나는 예외들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규범에 대해 말합니다)는 이미 형성되어있는 그의 의견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가 성경을 진화의 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버린 후에 그가 미리 생각했던 개념들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종교 문제들에 있어서 고등 비평가는 대체로 ‘소화불량에 걸린 것처럼 우울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소화할 만큼 충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으며 의심을 퍼트립니다.

고등 비평가들은 여러 세기동안 유물론자들의 공격들을 잘 견뎌왔던 성경에 잉크를 뿌리며 생명의 원천이 되는 진리들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교만합니다. 이들의 성경에 반대하는 노력들이 오랫동안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중들이 그들의 결론들을 바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문서에 대항하는 고발을 공식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면 성경을 옹호하는 자들도 분명히 그 고발 내용을 검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파멸적인 고등 비평가는 대체로 부활에 반대합니다; 사실 그것은 다른 선포자들과 구별될 수 있는 실험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부활을 ‘종교적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사람이 분노라는 발작으로 살인자도 될 수 있거나 혹은 열정의 발작으로 인생을 망치거나 부정직함으로 은행을 털게 되는 것을 이해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회개가 일어나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며 기적들은 진화와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고등 비평가는 방탕한 아들이 자유 의지로 떠났다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왔다는 것이 충격인 것입니다.

진화 교리와는 상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등 비평가들은 처녀 탄생이 우리 자신의 출생보다 더 신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그분의 부활을 폐기해 버립니다. - 유일하게 다른 그분의 부활은 인생의 기원보다 더 신비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두 가지를 다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두 가지를 확립하기에 충분합니다. 현재 그대로의 성경은 수백만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했고 용서를 통해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했으나 고등 비평가들이 만든 대로의 성경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대적들은 거의 이천년 동안 ‘만세 반석 공격’을 해 왔지만 그러한 공공연하고 비밀스러운 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책은 아직도 그분의 자녀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파멸에 이르는 비평가는 ...

- 1) 불신자이며
- 2)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 3) 성경을 인간 기원의 어떤 다른 책과 같이 간주하며
- 4) 성경의 대언들이 초자연적인 성격이 있음을 부인하며 (즉,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들을 아는 것을 부정하며)
- 5)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부정하며
- 6)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고전2:14와 1:18비교)
- 7)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적인 구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요3:3,5).

The Anvil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의 모루

Last eve I paused beside a blacksmith's door
And heard the anvil ring the vesper chime;
Then looking in, I saw upon the floor,
Old hammers worn with beating years of time.
"How many anvils have you had," said I,
"to wear and batter on these hammers so?"
"Just one," said he, and then with twinkling eyes,
"The anvil wears the hammers out you know."
"And so," I thought, "the anvil of God's Word
For ages skeptics' blows have beat upon,
Yet though the noise of falling blows was heard
The anvil is unmarred, the hammers gone."
어제 밤 나는 대장장이의 문 옆에 멈춰섰네
그리고 모루가 저녁기도 종을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며 마루 위를 보았네,
오랫동안 내려치여진 오래 된 망치들이 많아있음을 보았네.
"모루가 몇 개나 있습니까?"하고 내가 물었네,
"딱 하나,"라고 그가 답했고 그리고 나서 뻥뻥거리는 눈으로,
"모루가 망치를 닳게 하는 것을 압니까?"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루는
오랜 세월동안 회의주의자에 의해 내려쳐졌지,
내리치는 타격들의 소음이 들려왔어도
모루는 상하지 않았고 망치는 사라졌다네."

— 존 클리포드(John Clifford)

당신은 거룩한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미래에 대해서나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망치와 못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있었습니다. 고래에게 삼켜진 후에 살아났던 요나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소돔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실제로 있었고 위로부터 온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사랑을 담아 히브리 백성들에게 보내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실제로 처녀 마리아가 있었고 그의 자궁 속에 예수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죽이심을 당하였고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낫게 해 주셨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시력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듣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세 사람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무리들을 물고기 두 마리와 다섯 개의 빵만으로 먹이셨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데 - 그들의 죄가 용서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확실히 들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성경은 많은 것에 대해 말하는데 - 어떤 것은 이해하기 쉽고 어떤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서부터 왔으므로 완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의견을 말하지 마시오. 그것은 절대 틀리지 않는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내용을 주셨기 때문이고 한 구절도 거기에 속하지 않은 절은 없습니다.

아니오, 성경에 대해 어느 의견도 말하지 마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읽어가면서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십시오. 들음으로 축복받으실 것입니다

--브루스 오옌 (Bruce Oyen)

주일학교 7학년 13과

우리 손에 어떻게 성경이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름 _____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_____, 하라”
(사40:8)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_____.”(마24:35)

공격 받은 성경-로마의 공격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제국의 압제 아래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폭정아래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초기 교회역사 300년 동안 박해에 박해가 꼬리를 잇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죽은 많은 성도들을 특별히 순교자들 이라고 부릅니다.(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사형 당함)

A.D. 30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황제가 **모든 성경을 파괴해야 한다**는 황제 칙령을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경이 불에 뒀고 많은 성경 신자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항한 이 사악한 공격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심지어 성경 복사본을 만들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공격 받은 성경-로마 카톨릭교회의 공격

몇 세기가 흘러서 사탄은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 보통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몇 가지 방식들 가운데, 이 방법은 성경을 불에 태우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기를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 할 수 없고 오직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제, 주교 그리고 교황 뿐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보통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닫힌 책**이 되어버렸고 접근도 안 됐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이 진실로 가르치는 바에 대해 전체적으로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A.D. 1229년 툴루즈(Toulouse)교회 의회는 실제로 평신도¹⁷⁾(laymen)들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이 보통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공격 받은 성경-불신자 혹은 이교도들의 공격

최근에 들어서 성경은 믿지 않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과에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그들의 비평학(Criticism)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공격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성경을 파괴하고자 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17) 사제나 주교가 아닌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

볼테르(Voltaire)- 프랑스에 유명한 불신자, 그 시대에 가장 재능 있는 작가 중에 한명-가 그의 펜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지연시키고 파괴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볼테르는 “저주받을 미술사”라고 맹비난을 하였고 한때 “향후 20년 안에 그리스도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야. 난 한손으로 그가 12제자들과 함께 세운 체계를 파괴할 것이야.”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죽은 후, 그의 욕설로 된 작품들을 복사했던 바로 그 집이 제네바 성경 협회(Geneva Bible Society)의 보급소 되었습니다. 볼테르를 간호했던 간호사가 말하기를 “은 유럽에 부자들을 대상으로 나는 또 다른 불신자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과의사 트로킴(Trochim)은 볼테르의 임종을 기다리면서 그가 가장 절박하게 소리쳤다고 회고했습니다.

볼테르가 자신의 임종 시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이다! 나는 만약 당신이 내 목숨을 6개월만이라도 늘려준다면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줄 수 있소. 그러면 나는 지옥으로 갈 것이요, 그리고 당신도 나와 함께 지옥을 갈 것이요. 오, 그리스도여! 오 예수 그리스도여!”

[Herbert Lockyer의 책 <성도와 죄인의 마지막 말>에서 발췌함, p133]

볼테르(Voltaire)는 자신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성경을 없앨 수 있다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더 이상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볼테르는 1778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 수백만 개의 성경이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세상에 넘쳐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볼테르의 글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그는 죽고 없지만 성경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_____ 고 영원히_____ ” (벧전1:23)

**“당장 적대적인 자들의 손에 망치로 하나님의 모루를 때려보아라
망치만 부서질 것이다.
하나님의 모루는 여전히 견고하게 서있다.”**

다음은 페이슨 박사(Dr. Payson)의 <책 중의 책의 불멸성(indestructibility)>에 나온 일부분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동안 이 책은 굳건히 서있습니다. 쇠 이빨의 시기(the iron tooth of time)-많은 순교자가 배출되었던 시기- 뿐 아니라 모든 물리적 지적인 사람의 힘-본문 비평학으로 성경의 보존을 파괴-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친구인척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치고 배반하는 노력을 하였고, 왕과 군주들이 세상에서 그것을 추방시키려고 끈질기게 못살게 굴었고, 세상의 큰 나라들의 군대병력들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연맹을 맺고, 박해의 화염이 성경과 성경을 따르는 친구들의 목숨도 불사라 버렸고 그 적들의 분노로부터 그것을 도피처로 삼은 거의 확실한 결과는 절기 죽음에서 가장 끔찍한 형태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더욱 심하게 조롱받았고 더욱 무식하게 잘못 전해지고, 더욱 악의 있게 배척받고 그 밖에 다른 어떤 책 아마 합본된 다른 어떤 책들보다 더 자주 불에 태워졌지만 적들의 어떤 노력에도 침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것의 생존의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일어나서 그것을 강타해도 그것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반석위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불타고 있는 덤불나무 같이, 그것은 화염 속에 있어

왔지만, 여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텀블속에서 말하셨던 그분이 바로 성경의 저자라는 것 이외에 다른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번역된 성경- 그리스어 성경(헬라어)

알렉산더 대왕 통치 아래, 그리스는 세계에 유명한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대략 B.C. 331년)그리고 그리스 언어와 문화는 지배 제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로마가 그리스의 패권을 이어받았을 때조차도 지중해 전역의 공통 언어는 여전히 그리스어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어를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서 더 이상 히브리어를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히브리어로 기록됨)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고 이는 그래야 만이 그리스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든 그것을 읽고 이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약200년 즈음, 구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는데 이 성경번역본을 오늘날 70인역¹⁸⁾(Septuagint)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은 최초의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70인역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고 사도들, 초기 기독교인들도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귀중한 역할을 담당 했습니다.

라틴어 성경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제국의 동쪽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어를 말했지만 서쪽지역은 라틴어를 말했습니다. 서로마지역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성경을 라틴어(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할 필요성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유명한 라틴어 성경은 A.D.404년에 제롬(Jerome)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롬(Jerome)은 그리스와 히브리어를 아는 위대한 학자였는데, 그는 팔레스타인(Palestine)에서 공부 할 때 유대 랍비로부터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그가 번역한 성경을 라틴 별 게이트(Latin Vulgate)라고 불렀는데 별게이트(Vulgate)라는 의미는 ‘공통 혹은 보통’이란 뜻으로 그것이 보통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라틴 별게이트 번역본은 이후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이었습니다.

독일어 성경

16세기 초에,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독일에서 종교개혁으로 잘 알려진 “성경으로 돌아가기”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성경만이 믿음(우리가 믿는바)과 실행(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최종 권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이 사람들의 책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와 학교, 집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열린 성경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라틴어를 이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 는 그들에게 무용지물 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22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마침내 루터는 훌륭하게 번역작업을 마무리 했고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18) 약자로 LXX,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 70+이기 때문에; 전설로는 72명의 번역자가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손에 들려준 루터에서 크게 감사해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한 때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책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은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세상은 성경에 대한 심한 원수가 되어왔기 때문이다...우리가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자, 그러나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기도 가운데, 성경을 읽고 가르치자... 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윌리엄 하즈릿(William Hazlitt)이 번역한 <The Table Talk of Martin Luther>에서 발췌함

영어성경

위클리프(Wycliffe)

존 위클리프¹⁹⁾(John Wycliffe)는 성경을 영어로 완전히 번역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일은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약 100년 전인 1282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클리프(Wycliffe)는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 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해야 할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불가결한 생명의 빵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어디든지 알려져야만 하며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주어져야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명백한 의미는 단순히 본문을 문자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모든 음절은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안에서 어떤 오류(error)를 발견한다면 그 오류는 인간의 무지 때문이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되며 그 어떤 것도 더해서 가르쳐도 안 된다.” (Schaff의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제 5권 p340)

위클리프는 보통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막는 일은 큰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모국어인 영어로 성경 번역본을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영어로 된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원본언어(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에서가 아닌 라틴 별게이트 에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라틴어에서 번역한 것은 매우 정확했으나 만약 라틴어 번역본이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그 문제가 영어번역에서도 옮겨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위클리프의 잘못이 아니라 그가 사용한 번역본의 잘못이었습니다. 신약은 1382년에 완성 되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은 그의 친구인 니콜라스 데 헤리포드(Nicholas de Hereford)가 완성했는데 위클리프가 또한 몇몇 작업을 했고 그가 1384년 죽기 전에 마침내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들은 수작업으로 복사해야 했고 책으로 출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몇몇 복사본은 포켓 사이즈였는데 보통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매일 사용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매우 비쌌는데 왜냐하면 하나의 성경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쇄공이 몇 달의 시간을 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위클리프 성경은 영적으로 갈급했던 사람들에게 곧바로 전달되었으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한 두 시간 성경을 읽으려고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폭스(Foxe)는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신약성경을 읽기 위해서 건초 한 더미를 지불해야했다고 기록합니다. (만약 지금도 성경읽기가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과연 성경 한 시간 읽기 위해 얼마의 가치를 지불할 것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위클리프는 1384년 마비성 뇌졸중을 죽었습니다. 1414년에 영어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 되었고 영어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자신의 땅이나 재산을 잃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콘스탄스 교회 회의회는 위클리프가

19) 1324년 태어남, <종교개혁의 새벽별>로 유명함

이단이었다고 선포했고 그가 이미 죽은 이후에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위클리프의 유일한 죄목은 영국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주고자 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1428년 그가 죽은 이후 40년이 지나서, 그의 뼈들을 파내서 그 잔해를 불에 태우고 그 재를 새번강(Severn river)에 뿌렸습니다. 물론, 이런 악행이 위클리프에게 어떤 해로움이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이 위클리프의 뼈를 가지고 악행을 했을 지라도 위클리프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빌1:23, 고후5:8). 위클리프의 잔해들이 강줄기를 따라 바다로 흘러간 것처럼 그의 가르침도 세상을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사건 이후 500년 동안 위클리프 성경의 많은 사본들이 몰수되고 불에 태워졌고 사고와 태만으로 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개의 사본이 오늘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손으로 수고스럽게 작업한 원래 사본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ilip seith to him, lord schewe to us the fadir, and it sufficith to us. ihesus seith to hym, so long tyme I am with you: and han ye not knowen me? Filip, he that seith me seith also the fadir, bileuest thou not that I am in the fadir and the fadir is in me; the wordis that I speke to you, I speke not of my self; but the fadir hym silf dwellinge in me, doith the workis..."

[요한복음 14:8-10, 위클리프 성경에서(Wycliffe Bible); 이것은 읽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위클리프는 중세 영어로 썼기에 오늘날의 영어와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헤미안 개혁자인 존 후스(John Hus)의 글들- 그 글들로 인해 그가 비난 받고 화형에 처해짐-은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의 설교와 교리, 논설을 응용하고 번역한 것에 주로 의존한 것들이었다.

1521년 보름스 의회(the Diet of Worms)에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그의 최종 권위를 성경에 둠으로써 위클리프와 허스에 대한 실수들을 새롭게 고발하였습니다.

체코의 프라하(Prague)도서관에는 3개의 메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달은 돌로 불꽃을 일으키는 위클리프의 형상을 보여주고 두 번째 메달은 그 불꽃에서 불을 붙이는 존 허스의 모습을 그리고 세 번째는 불타는 성화를 높이 들어 올리고 있는 루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메달은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상징적인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영국사람, 보헤미안 사람, 독일 사람의 영향 아래 시작하여 계속되고 마침내 결정을 이루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84년은 위클리프 순교 6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틴데일(Tyndale)

위클리프에 이어 영어 성경의 연결고리 속에서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위대한 이름은 바로 1494년에 태어난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입니다. 그는 “영어성경의 아버지”로 불려 왔습니다. 그가 태어난 글로스터셔²⁰⁾(Gloucestershire)는 로마 카톨릭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교회의 가장 가치 있는 유적(그리스도의 실제 피의 일부를 담고 있는 작은 병이 있다고 함) 중에 하나로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은 너무 가치가 있어서 사제들은 영원한 구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이것만 잘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그렇게 하는 게 신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_____ 있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무런

20) 영국 잉글랜드 서남부의 주; 1974년에 일부가 Avon주로 분할됨, 약어 Glos

가치 없는 유물을 믿는 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히7:25)

영국 내에서 박해가 너무 심해서 틴데일은 독일에서 그 번역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원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의 동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 그는(틴데일)은 7개 언어에 능통합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영어, 불어. 그가 어떤 언어로 말하면 당신은 그것이 그의 모국어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는 또한 마르틴 루터의 훌륭한 독일어 성경 번역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구약 전체를 완성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살지 못했지만 훌륭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틴데일의 가슴속에 원대한 꿈은 성경을 보통사람들의 언어로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1523년 그는 그의 이 마음속 부담을 진술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수 있으면 좋으련만” 1522년 그는 로마 카톨릭 사제가 “교황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 없다면 우리는 더 좋을 텐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사제가 자신이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교황의 말에 가치를 두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틴데일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조금 연장해 주신다면 쟁기를 가는 소년이 저들(사제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할 것이다.” 이 예언은 실제로 영광스럽게도 현실로 이루어 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24년 틴데일은 독일로 배를 타고 건너가 다시는 영국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집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임한 생명의 위협들은 그가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틴데일은 위클리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유리한 점 즉 인쇄기술로 알려진 새로운 기술의 이점을 활용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성경은 독일에서 두 개 사이즈(큰 글자 성경과 작은 글자 성경)로 복사되었습니다. 틴데일이 생각하기에 만약 카톨릭 주교가 큰 성경을 발견하더라도 그는 작은 성경들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들은 영국으로 “밀수”되었습니다- 판매용 옷과 물품들과 온통 덮인 통속에, 옷처럼 보이는 짐작 속에, 밀가루 자루 속에, 성경들을 숨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 되었습니다. 상당한 수의 성경들이 영국으로 전해졌는데 곧 카톨릭 주교가 그 성경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항구에서 주의 깊게 감시가 이뤄졌고 많은 성경 꾸러미들을 감시관들이 발견하면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성경을 찾지는 못했고 모두 태우지도 못했습니다. 상당수의 성경들은 그것을 간절히 읽기 원하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런던의 카톨릭 주교는 독일의 상인을 통해서 인쇄된 모든 성경 사본들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바다 건너 영국으로 건너올 성경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알아채지 못한 것은 그 독일 상인이 틴데일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이것이 틴데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했습니다. 그 시기에 틴데일의 가장 큰 필요는 자금이었는데 그는 이 작업을 위해 복사기를 구매했고 성경을 새롭게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교는 성경을 구매하는데 상당한 돈을 지불했고 그리고는 그것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카톨릭 주교는 그가 모든 성경을 불태웠으니 더 이상 영국으로 건너올 성경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일 이후 전에 보다 더 많은 성경이 영국으로 들어와 감시관도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되었을 때 주교의 표정이 어땠을 까요? 주교는 자기가 성경을 몽땅 사들일 때 쓴 돈이 성경을 인쇄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상당한 충격을 먹었습니다.

틴데일은 자기의 사랑하는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했지만 그곳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독일에 남았습니다. 틴데일의 삶은 거룩한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틴데일의 원수인 토머스 모어 경도 틴데일의 경건한 생활만큼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올바른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 성경에 대해 박식하고 잘 배웠고, 영국 어느 곳에서든 사람들의 호감을 사며, 가르치기를 잘 하였고... 술에 취하지 않고 정직한 생활을 하고, 신중하게 잘 살펴보며 거룩하게 설교하는 사람이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친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배반 당하셨는데, 틴데일에게도 동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틴데일의 “가룟 유다”는 필립(Phillips)이란 이름의 사람으로 틴데일이 신뢰하고 신실하고 믿음직스럽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립은 틴데일을 잡기 위해 주교가 보낸 스파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틴데일이 저녁 공기를 즐기며 집 밖에서 산책 할 때, 한 일당이 틴데일을 붙잡았고 결박하여

그를 어두운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1536년 그들은 틴데일을 목 졸라 죽이고 그의 몸은 화형 당했습니다. 틴데일은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의 큰 죄목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틴데일을 옥에 가두고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딤후2:9) 그리고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 작업의 결과물들을 죽이거나 파괴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주여, 영국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틴데일의 순교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틴데일이 작업한 것을 주로 기초로 하여 다만 그의 이름 없이 전체 성경 편집본이 유통되었고 영어로 읽혔습니다. 공개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말이지요. 이는 틴데일이 죽으면서 드린 기도가 이미 응답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100년이 채 못 되어, 영국의 왕 제임스 1세(James)가 킹제임스 바이블(King James Bible)로 알려진 새로운 성경 번역본을 승인하고 후원하였습니다. 킹제임스 바이블에 틴데일이 미친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 대부분(90%)가 틴데일이 성경에 썼던 단어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틴데일과 그가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까지 했던 성경에 크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16세기부터 21세기 까지 쟁기를 끄는 소년은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틴데일 시대에 영국 카톨릭교회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에 대해 사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발휘시켰다. 1519년 어느 날, 카톨릭교회 권위자들은 한 여성과 여섯 명의 남자들을 단지 그들의 아이들에게 주기도문과 십계명, 사도의 신조를 영어 버전으로 가르쳤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화형을 시켰다.

당신은 당신의 손에 성경이 있다는 것과 순교자들이 지불한 값으로 당신이 성경을 소유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성경이 급속도로 퍼지는 일을 탄생시킨 사건은 움직이는 형태의 인쇄술의 발명이었습니다. 그것은 1455년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가 그의 최초의 작품을 인쇄하였는데 이는 지금 마자린 바이블(Mazarin Bible)이라고 불리는 라틴 벌게이트 편집본 이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이전의 영어 성경들

The English Bibles Before the King James Version



1)커버데일 성경(The Coverdale Bible) (1535). 이 책은 최초로 완성된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커버데일은 틴데일의 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2)그레이트 성경(The Great Bible) (1539). 이 성경은 “그레이트”(great)라고 불렸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성서 낭독대 혹은 설교단에 놓고 사용할 의도로 만든 큰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최초로 공식화된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공식화라는 의미는 왕의 승인을 받아 공식 예배 때 교회가 사용하는 공식적인 교회 성경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3) 제네바 성경(The Geneva Bible) (1560). 이 책은 영국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제일 인기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이 책은 훌륭한 번역본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지만 가정성경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 책은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성경,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 아버지들의 성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크롬웰(Cromwell)-영국 장군, 연설가-의 성경이었습니다. 그것은 크롬웰 군인의 성경에 기초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존 번연(John Bunyan)-〈천로역정〉의 저자-이 사용했던 번역본입니다. 제네바 성경에 대한 제임스 왕의 의견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번역본이 제네바 성경을 대체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제네바 성경의 출애굽기1장9절의 여백 주석에는 히브리 산파들이 이집트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옳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왕은 왕의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런 여백 주석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것이 자신의 왕국에 대한 위협으로 까지 느꼈습니다.

4) 비숍성경(The Bishops' Bible) (1568). 이것은 두 번째 공식적인 영어 성경이었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숍성경은 제네바 성경만큼 인기 있지는 않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새로운 번역이 되기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비숍성경의 개정판이 되기를 의도했습니다.

5) 라임-듀웨이 성경(The Rheims-Douay Bible) (1582-1610). 이것은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로마 카톨릭 성경이었습니다. (라틴 별 게이트에서 번역함)

킹 제임스 성경(THE KING JAMES VERSION)

제임스 1세 왕은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또 다른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성경을 만들기 위해 성경번역 작업을 후원하였습니다. 비록 번역자들이 이전의 영어 성경 모두를 사용하고 원본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도 그들의 작업을 위해 활용했지만, 제임스 왕은 비숍성경의 개정판이 킹제임스 성경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47명의 학자들이 동원 되었고 거의 3년의 시간의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마침내 1611년 권위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처음 출간 당시에는 제네바 성경이 여전히 인기가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더욱 즐겨 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 여태까지 번역된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라는 점에 동의하였고 그리하여 이 성경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근 350년 가까이 가장 인기 있고 사랑받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확실히 걸작품이었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교회들에서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있습니다.

현대 영어 번역본들(Modern English Translations)

지난 100년간 수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영향력 있는 것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우리가 이 성경들을 추천하거나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4과에서 우리는 현대 역본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이 번역본들은 출간된 시간 순서로 나열된 것입니다. 이 역본들은 모두 부패된 사본에서 나온 좋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Revised Version (England) - RV - 1881-1885

American Standard Version - ASV - 1901

Revised Standard Version - RSV - 1952, a revision of the American

Standard Version

- Amplified Bible - AB - 1965
- New English Bible - NEB - 1970, includes the Apocrypha
- Living Bible - LB - 1971, a paraphrase version
- Today's English Version - TEV - 1976, a.k.a. Good News Bible
-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 NAS - 1977
- New International Version - NIV - 1978
- New World Translation - NWT - 1984 (done by Jehovah's Witnesses)
- New American Bible - NAB - 1987, includes the Apocrypha (a Catholic Bible)
-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 NRS - 1989, the authorized revision of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 New King James Version - NKJ - 1990
- The Message - TM - 1993, a.k.a.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English
- The New Living Translation - NLT - 1996
- English Standard Version - ESV - 2001, a revision of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 - 2004
- 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 - TNIV - 2005

깊이 생각해 볼 질문들

1.	오늘날 미국에서 성경은 비싸지 않고 번역본은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것으로 인해 박해 받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보통 사람에게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아니면 왜 아니죠?
2.	오늘날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나요?
3.	오늘날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되지 않아서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요?
4.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다루고 그것을 어떻게 대할지에 관해 주의해야 할까요? 그것을 경건하게 다루야 하나요? 그것을 다른 책들처럼 다루야 하나요?
5.	언젠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소유하는 자유가 빼앗길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모든 성경이 갑자기 제거되고 파괴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억해야 할까요?

수백 년이 지나도 ... 그것은 서있다네.

제국이 흥하고 멸망하여 잊혀져도 ...그것은 서있다네.

왕조가 대를 이어가도 ... 그것은 서있다네.

왕이 왕위에 오르고 왕위에서 내려와도 ... 그것은 서있다네...

그것은 모든 책들 보다 오래 살고 높임 받고 사랑받고, 더 멀리 전해지고

더 높은 등급에 오르고 오래 동안 살아 움직이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복종하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너의 것이다.

--콘라드(*Dr. A.Z. Conrad*)

성경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